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09. **3** Vol. 207



뮤지컬 _ 지킬 앤 하이드

○ **대 상** 극장(대·중·소), 전시장(대·중)

○ **대관내용**

○ 대 관 기 간 : 2009년 7월 ~ 12월 [6개월간]

※ 무대보수 및 정비로 인한 대관 불가기간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극장	13(월)~17(금)	3(월)~4(화)	21(월)~22(화)	26(월)~27(화)	23(월)~24(화)	21(월)
중극장	13(월)~31(금)	1(토)~21(금)	21(월)~22(화)	26(월)~27(화)	23(월)~24(화)	21(월)
소극장	13(월)~17(금)	3(월)~4(화)	-	-	-	-

○ 접 수 기 간 : 2009. 3. 18(수) ~ 3. 31(화) [10일간]

- 접수시간 : 월~금 09:00 - 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 대관심의 및 결정 통보

접수 마지막일로부터 30일이내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사용허가 통보

○ **기본방향**

- 순수문화예술 공연·전시 우선 → 대중 예술공연 제한적 허용
-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전시
- 종합예술공연 진흥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 창작 또는 유망신인 작품 발표 기회 제공
- 소규모 연주회는 소극장으로 대관안내, 대·중극장 편중지양

○ **대관신청 및 허가 절차**

○ 상담(구두, 전화) → 신청및접수(적정여부) → 대관심의(일정조정) → 통보

○ **대관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공연계획서(프로그램, 프로필 등 첨부) 1부

※ 공연계획서 없는 신청서는 접수되지 아니하며, 공연계획서 내용 미비등은 대관심의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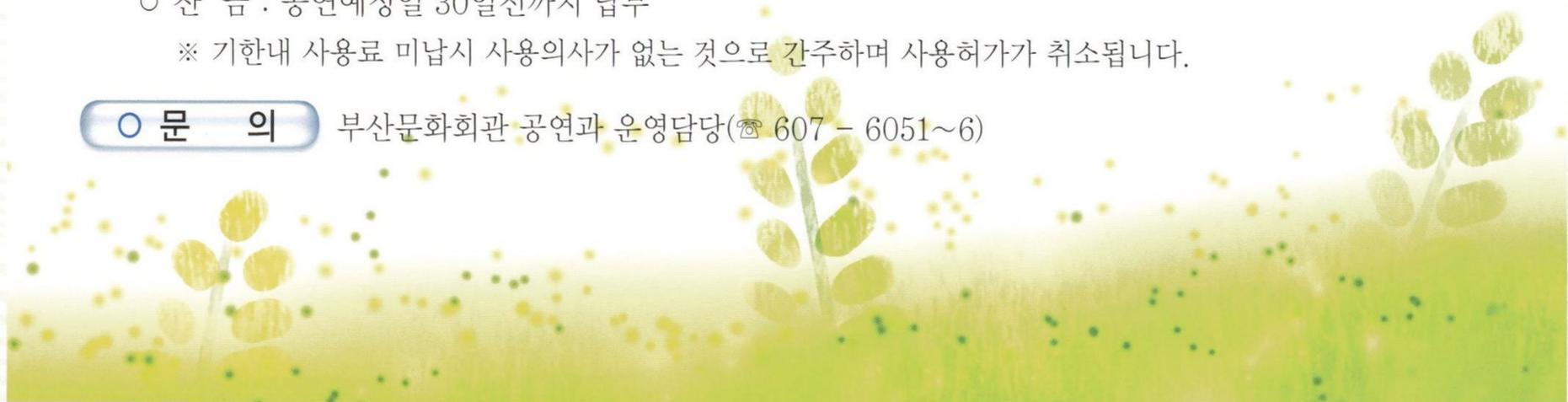
○ **사용료 납부**

○ 계약금(기본시설 사용료의 10%) : 사용허가후 30일이내 납부, 계약체결

○ 잔 금 : 공연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

※ 기한내 사용료 미납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 **문 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운영담당(☎ 607 - 6051~6)





부산야마하
피아노/악기

전문 판매점



학교, 교회, 전공자 특별 우대 및 중고피아노 보상판매

피아노 조율 전문점

- 국가공인 1급 피아노 조율사
- 일본 YAMAHA본사(하마마츠) 기술학교 졸업자
- 제 5회 부산국제음악제 피아노 및 조율지원

야마하 피아노사 부산점	051-863-0900
메가마트 피아노사 남천점(4F)	051-622-0815
메가마트 피아노사 동래점(3F)	051-582-0808
사직동 홈플러스 피아노사	051-506-7332
해운대 홈플러스 피아노사(수영만)	051-743-7785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25회 정기연주회

꽃들이 노래하는 봄



지휘 전 상 철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소프라노 장은녕

· 반주 이영옥 · 안무지도 노금선 · 합창지도 김양자

꽃의 노래

· 진달래꽃 · 산유화 · 목련화

특별출연 소프라노 장은녕

· Once upon a dream / Frank Wildhom(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중에서)
· Ave Maria / G. Caccini(드라마 '천국의 계단' ost 중에서)

왈츠와 함께(요한 슈트라우스 곡)

· 폴카[op.328] · 빈 숲속의 이야기 [op.325]

찬조출연 미루샘여성합창단

· 세노야 · 도라지 꽃 · 즐거운 웃음

장구 소고 춤 · 오순정 외 13명

아리랑 모음곡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강원도아리랑, 경기도아리랑, 홀로아리랑



지휘 고 봉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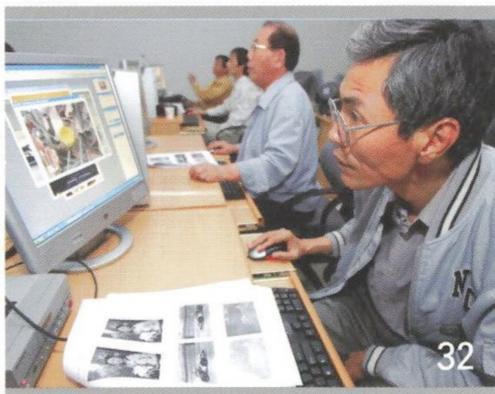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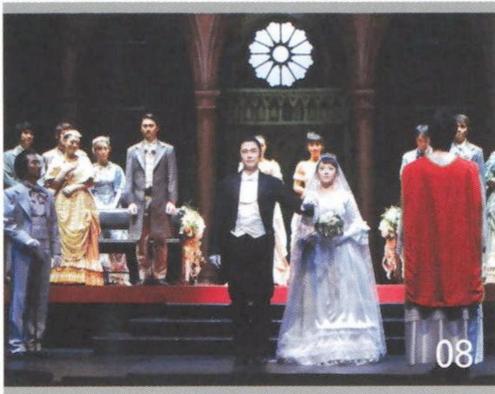
미루샘여성합창단

2009. 3. 21(토)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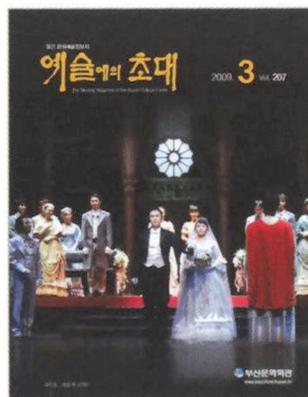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후원 SAMSUNG 르노삼성자동차 Focus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607-607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6131
인터넷 예매 ■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www.bsulture.busan.kr ■ ticketlink 콜센터(1588-7890) www.ticketlink.co.kr



- 08 커버스토리 _ 왕의 귀환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 12 프리뷰
- 18 반갑습니다 _ 김온경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신임이사장
- 20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_ 부산시립합창단 독일공연 · 김지혜
- 24 행복한 오페라 여행 _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 김홍승
- 26 생활속의 판화이야기 _ 영국 팝아트의 기수, 데이비드 호크니 · 채경혜
- 28 불멸의 거장, 말러 _ 복잡한 태생, 복잡한 음악 · 김문경
- 29 황윤기의 월드뮤직 여행 _ 브라질 I '보사노바 (Bossa Nova)' · 황윤기
- 30 리뷰
- 32 그곳에 가면 _ 시청자미디어센터
- 34 프로그램 가이드
- 48 나의 애청음반 _ FM풍류마을 · 권은영
- 49 새로 나온 책
- 50 우리는 문화가족 _ 거리의 미술 동호회 부산모임
- 51 부산문화회관 소식
- 52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 54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55 100자 토크



2009. 3 Vol.207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1(야간) FAX. 051-607-6079

발행인 정우연 편집인 박원철 편집장 백경옥

발행일 2009년 2월 25일

인쇄처 한글그래픽스

표지설명

뮤지컬의 절대적인 신화 '지킬 앤 하이드'가 3월 6일부터 8일까지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역사적인 부산공연을 갖는다.

2009. 3 MARCH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Sunday 일요일

Monday 월요일

Tuesday 화요일

01

소 | 늘소리 음악학원 정기연주회 17:00
무료/박필희(624-1535, 010-7216-1535)

02

중 | 토브여성합창단 제 1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이일경(643-4918, 010-4880-4918)

03

08

대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14:00, 18:30
12만원 · 10만원 · 7만원 · 4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7), AN시티(1644-4484)

중 | 2009 캐논볼 재즈 콘서트-색소포니스트 이병주
19:30
4만원 · 3만원 · 1만 5천원
E-Zen엔터테인먼트
(904-8881, 010-9513-7876)

09

중 | 제 8회 베이스 손욱 독창회 19:30
초대/손욱(011-9520-4649)

10

15

중 | 부산뮤즈플랫폼앙상블 제 5회 정기연주회 17:00
초대/백인아(010-4335-8330)

16

대 | UKO 제 12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과 나눔의 음악회 19:30
2만원 · 1만원/정희자(011-589-3111)

중 | 김은진 비올라 리사이틀 - Inspiration
19:30
2만원 · 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17

대 | 한낮의 유U:콘서트 '모닝카페' 11:00
균일 1만 5천원/국제신문(500-5222)

중 | 부산음악협회 제 9회 신춘음악회 19:30
초대/부산음악협회(634-1295)



황대옥 작

전시실

▶ 제 5회 가마먹빛전 - 대전시실
3월 7일(토)-3월 11일(수)
문의 : 한현숙(207-0348, 011-9537-0314)

▶ 제 27회 대한민국 서예대전 및 미술대상전
- 대 · 중전시실
3월 22일(일)-3월 24일(화)
문의 : 박효덕(701-5950, 010-3854-5950)
※ 시상식 : 3월 22일(일) 09:30 국제회의장

22

중 | 부산원음합창단 제 14회 정기연주회 15:00
균일 1만원/원불교 부산교구(245-0717)

23

24

29

중 | 2009 부산연극제 축하공연-극단 골목길
'너무 놀라지 마라' 15:00, 18:00
3만원 · 2만원 · 1만원/공간소극장(611-8518)

30

31

중 | 2009 부산연극제 경연작-부산연극제작소
동혁 '밴드래기 야기' 19:30
균일 1만원/부산연극제작소 동혁(751-0858)

♻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약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3월과 4월에는 소극장 공사관계로
토요상설무대는 쉽니다.

Wednesday 수요일

Thursday 목요일

Friday 금요일

Saturday 토요일

04

05

06

07

11

12

13

14

18

19

20

21

25

26

27

28

4/1

4/2

4/3

4/4

중 | 양상블 디 마레 제 2회 정기연주회 19:30
2만원, 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2)

중 | 김소형 피아노 독주회 19:30
초대/김소형(890-1298)

중 | 양경아 바이올린 독주회- Sonata I 19:30
2만원 · 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중 | 조상한 귀국 피아노 독주회 19:30
초대/부산아트메니지먼트(747-1536)

중 | 2009 부산연극제 경연작-부산연극제작소
동역 '밴드래기 야기' 16:30, 19:30
균일 1만원/부산연극제작소 동역(751-0858)

중 | 모던 아트 잭스텝과 함께 하는 한미영의 작품
19:30
1만원 · 5천원/부산음악협회(634-1295)

대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47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대 | 테너 김상곤 교수 3개도시 순회 독창회 20:00
2만원 · 1만원/모티브 플래닝(02-543-7352)

대 | 부산시립극단 제 34회 정기공연
'무엇이 될고하니' 19:30
3만원 · 2만원/부산시립극단(607-6136)

대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20:00
12만원 · 10만원 · 7만원 · 4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7), AN시티(1644-4484)

대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09 부산연주인시리즈 I
'2009 신춘음악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중 | 남부산농협 청솔합창단 정기연주회 및
심장병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 19:30
무료/배희자(610-3650, 010-8450-6032)

중 | 제 38회 독우회 피아노 연주회 19:30
균일 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대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춘음악회
- 飛天 동춘서커스 국악에 안기다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중 | 2009 부산연극제 개막식 19:00
초대/부산연극협회(645-3759)

대 | 부산시립극단 제 34회 정기공연
'무엇이 될고하니' 19:30
3만원 · 2만원/부산시립극단(607-6136)

중 | 2009 부산연극제 경연작-극단 예저포
'그래도 달은 떠오른다' 19:30
균일 1만원/극단 예저포(852-9161)

대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15:00, 19:30
12만원 · 10만원 · 7만원 · 4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7), AN시티(1644-4484)

중 |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제 34회 정기연주회 'Jupiter' 19:30
1만원 · 5천원/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627-8088)

대 | 솔로페라단이 선사하는 유쾌한 음악 선물
'Fun Fun한 콘서트' 19:30
8만원 · 6만원 · 4만원 · 3만원 · 2만원 · 1만원
솔로페라단(1544-9373)

중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25회 정기연주회
'꽃들이 노래하는 봄' 17:0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6131)

대 | 부산멜로소오케스트라 제 6회 정기연주회
19:00
초대/멜로소오케스트라(017-563-5067)

중 | 2009 부산연극제 축하공연-극단 골목길
'너무 놀라지 마라' 16:00, 19:00
3만원 · 2만원 · 1만원/공간소극장(611-8518)

대 | 부산시립극단 제 34회 정기공연
'무엇이 될고하니' 16:00
3만원 · 2만원/부산시립극단(607-6136)

중 | 2009 부산연극제 경연작-극단 예저포
'그래도 달은 떠오른다' 16:30, 19:30
균일 1만원/극단 예저포(852-9161)

오랜 기다림, 왕의 귀환!

뮤지컬의 절대적인 신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2009.3.6(금) ~ 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Press Review

가슴 뺨 뚫리는 폭발적 무대 _ 동아일보

선과 악의 이중 연기 묘한 매력 _ 국민일보

지킬 앤 하이드, 도쿄를 일으켜 세우다. _ 조선일보

폭발적 에너지에 '카~악' 6분간 기립박수, "필이 팍" 뮤지컬 한류 신호탄 _ 중앙일보

일본 열도 기립박수, 파워 있는 연기에 환호성 _ 국민일보

박진감 넘치는 전개, 진귀한 볼거리 _ 한겨레

30여 곡의 뮤지컬 넘버는 '지킬'이 흥행몰이를 하는 이유를 감동적으로 들려준다. _ 한겨레21

‘한국 뮤지컬의 신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가 3월 6일부터 8일까지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역사적인 부산공연을 갖는다.

2004년 초연부터 매 공연마다 1일 티켓 판매량 신기록 수립, 전회 기립 박수 등 한국 뮤지컬의 새로운 역사를 쓴 ‘지킬 앤 하이드’(프로듀서 신춘수/연출 안무 데이비드 스완)는 인간의 이중성을 극명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표현하여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특히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두 개의 본성 ‘선’과 ‘악’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혹적인 스토리와 지킬과 엠마, 루시의 로맨스가 더해져 ‘브로드웨이 뮤지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릴러’라는 극찬을 받고 있다.

2006년 일본 무대에 진출한 ‘지킬 앤 하이드’는 공연 전회 기립 박수를 받으며 뮤지컬의 한류를 이끌기도 했다. ‘지킬 앤 하이드’가 이와 같은 큰 사랑을 받으며 베스트셀러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은 작품이 가진 매력적인 힘 때문이다.

인간의 내면을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낸 캐릭터로 관객의 심리적 공감을 얻고 있는 ‘지킬 앤 하이드’는 1885년 런던, 중세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진행된다. 유능한 의사이자 과학자인 헨리 지킬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 때문에 인간의 정신을 분리하여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는 연구를 시작한다.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에 들어가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이사회와 전원 반대로 무산되고 임상실험대상을 구하지 못해 지킬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실험하기를 결정한다. 정신이 선과 악으로 분열되면서 결국 악으로만 가득 찬 제 2의 인물 하이드가 지킬의 내면을 차지하게 된다.

인간의 심리는 중세 빅토리아 세대와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다. 현대의 관객들도 충분히 지킬 박사와 그 내면에 살고 있는 하이드의 모습에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엠마, 루시와의 가슴 아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더해져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한다. 특히 자신의 연인 엠마를 지키기 위해 칼에 직접 몸을 던지고, 루시를 술집댄서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하며 무한한 우정을 보여 주는 지킬의 모습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지킬 앤 하이드’의 대표적인 뮤지컬 넘버인 ‘This is



the moment’, ‘Once upon a dream’과 같은 곡들은 이미 여러 음반과 CF 배경 음악 등으로 사용되어 대중들에게 익숙한 곡이다. 이 곡외에도 귀에 감기는 수려한 멜로디의 음악들이 작품 속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작품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 준다. 이 같은 작품의 힘 덕분에 ‘지킬 앤 하이드’는 오랜 시간 동안 국가를 뛰어 넘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2006년 무대 이후 3년 만에 부산에서 만나는 ‘지킬 앤 하이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 뮤지컬 애호가들의 기대가 크다. 특히 2009년 무대는 아름다운 넘버들, 탄탄한 배우들이 적절하게 앙상블을 이룬다. 2004년 ‘지킬 앤 하이드’ 초연 당시 조승우라는 배우를 발탁하며 국내 뮤지컬계의 스타 시스템을 처음으로 구축한 프로듀서 신춘수가 류정한, 홍광호, 임혜영, 김수정 등 뮤지컬계 최고의 유망주들과 2009년 ‘지킬 앤 하이드’로 뮤지컬의 새로운 신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2009년 공연에서 지킬로 캐스팅된 류정한은 2004년 초연 당시 한국의 첫 지킬로 열연했을 뿐 아니라 2006년 공연과 일본 공연까지 모두 참여하며 지킬로서의 입지를 다진 배우이다.

‘오페라의 유령’에서 라울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 토니로 로맨틱한 남성의 결정체를 보여주었던 류정한은 ‘지킬 앤 하이드’에서 클래식하면서 신사적인 지킬로 많은 여성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한편으로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젠틸함’을 완전히 벗어난 ‘하이드’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함으로써 ‘류정한의 재발견’이라는 찬사를 얻기도 했다. 류정한은 ‘지킬 앤 하이드’ 출연 이후 ‘맨 오브 라만차’ ‘쓰릴미’ ‘스위니토드’ ‘이블데드’ 등

- * 사람의 감정을 그토록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니. 숨이 막히듯이 너무나 열정이 넘치는 공연이었습니다.
- * 눈물이.. 꼭 슬플 때만 나오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해준 공연이었습니다.
- * 진정되지 않는 맘으로 잠을 설칠 만큼 엄청난 감동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 * 지킬은... 마약과도 같다. 끊을 수 없는 치명적 유혹!

다양한 캐릭터에 도전하면서 한층 더 성숙된 연기로 출연 작품마다 호평을 받고 있다.

류정환과 함께 부산 무대에 서게 될 홍광호는 뮤지컬계가 가장 주목하는 유망주로, 무려 1,200대 1의 치열한 경쟁 속에 4차가 넘는 오디션 과정을 거쳐 지킬의 자리를 거머쥐었다.

홍광호는 군 복무중 휴가를 나와 조승우의 '지킬 앤 하이드'를 처음 접하고서 오랜세월 지킬의 꿈을 키웠다. 홍광호는 '지킬 앤 하이드' 오디션에서 호소력 짙은 음색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뛰어난 감성으로 오디션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았다.

루시에는 김선영과 김수정이 열연한다. 김선영은 2004년, 2006년 공연에서 류정환, 조승우와 호흡을 맞추며 여배우로서 최고의 극찬을 받은 관록 있는 루시이다. 불꽃

같은 카리스마와 애절한 감성으로 관객을 사로 잡는 김선영은 초연 이후, 그동안 여러 무대경험을 바탕으로 쌓인 노련미로 2009년 더욱 매력 넘치는 루시를 보여줄 예정이다.

혜성처럼 나타난 새로운 루시 김수정은 가녀린 외모와는 달리 허스키하면서도 강렬한 음색을 지닌 매력적인 목소리의 소유자다. '드림걸즈' 오디션 중 제작진의 눈에 띄어 '지킬 앤 하이드' 오디션에 참여하게 된 김수정은 자신의 외형과는 전혀 다른 파워를 뽐내 제작진들을 놀라게 했다.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두 개의 본성 Good & Evil, 아름다운 선율에 담긴 위태로운 사랑과 위험한 게임을 즐겨보자.



지킬 류 정 환

▷ 나에게 있어서 지킬 앤 하이드는

한국 뮤지컬 관객들이 지킬 앤 하이드라는 작품을 사랑해주시는 것 만큼이나 저 개인적으로도 사랑스럽고 남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2004년 초연부터 매 시즌 공연을 할 때마다 배우로서 새로운 도전과 의미를 부여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 작품의 힘이자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훌륭한 동료배우들과 환상적인 스태프들, 그리고 매 시즌 환영해주시는 관객 여러분들만으로도 제 인생 최고의 작품이 아닐까요?

부산 관객 여러분들을 지킬과 하이드로써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매우 흥분됩니다. 훌륭한 공연을 완벽하게 준비하여 만나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부산 시민 여러분들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노래처럼 여러분들 인생의 황홀한 '순간'을 선사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부산에서 뵈겠습니다.

주요 뮤지컬 넘버

그대 향한 길(지킬, 내가 걷는 길(지킬, 엠마)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지킬, 엠마)
 홀로 설 때가 된 것을(덴버스, 엠마)
 뜨겁게 온 몸이 달았어(루시, 앙상블)
 선택은 없어, 지금 이 순간, 변화(지킬)
 얼라이브 1, 얼라이브 2(하이드)
 기도하네(지킬, 어터스, 엠마, 덴버스)
 사랑에 빠질 것 같아, 당신이라면(루시)
 한 때는 꿈에(엠마)
 그의 눈에서(엠마, 루시)
 나도 몰랐던 나(하이드, 루시)
 나의 길을 가겠어(지킬)
 시작해 새 인생(루시)
 그대 향한 길+대결(지킬, 하이드)
 마지막 변화(지킬, 엠마) 등

· 캐스팅 일정

날짜	시간	지킬	루시
3/6	8시	홍광호	김선영
3/7	3시	홍광호	김선영
3/7	7시30분	류정한	김수정
3/8	2시	홍광호	김수정
3/8	6시30분	류정한	김선영



루시 김 선 영

▷ 나에게 있어서 지킬 앤 하이드는

횟수로 6년을 지킬 앤 하이드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동안 배우로, 인간으로 성장해가면서 제가 맡고 있는 역할, 루시 또한 기특하게도 성장해가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 작품을 통해 매 시즌 한걸음씩 진보해나가는 나를 확인하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2006년에 이어 지킬 앤 하이드로 다시 한번 부산시민 여러분을 뵙게 되었네요. 아름다운 도시 부산에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요즘 경기도 좋지 않고 많이들 힘드실 텐데 잠시만이라도 아름다운 음악과 박진감 넘치는 시원한 이야기로 가슴을 뜨겁게 해줄 지킬 앤 하이드와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09 부산연주인시리즈 I

2009 신춘음악회

●3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정재은

새봄의 싱그러운 기운을 담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신춘음악회가 3월 13일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의 지휘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음악애호가들과 2009년 첫 만남을 갖는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는 신춘음악회의 싱그러움을 살리기 위해 봄날을 연상하는 밝고 가벼운 슈트라우스의 '봄의 소리 왈츠', 슈만의 교향곡 '봄' 등 봄을 위한 아름다운 관현악곡을 선곡,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봄소식을 전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2009년 부산연주인시리즈 연주가로 선정된 부산출신의 플루티스트 정재은이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유연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음악적 해석으로 매혹적인 음색을 선사하는 플루티스트 정재은은 부산예술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를 졸업한 후 독일로 유학, 함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정재은은 함부르크 Musikhalle에서의 독주회를 비롯하여 함부르크 콘서바토리 초청 하프-플루트 듀오 연주, Erloesen Kirche 초청연주 등 다수의 독주와 실내악 연주로 폭넓은 음악적 경험을 쌓으며 그 실력을 인정 받았다. 귀국 후 귀국독주회와 여러 차례 오케스트라 협

연을 통해 영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정재은은 현재 광명 심포니 오케스트라, 위튜티 윈드 앙상블, 플루트 듀엣 앙상블, P-Plus 앙상블 단원 등으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정재은은 이번 무대에서 라이네케 '플루트 협주곡 라장조 작품 283' 을 들려준다. 라이네케는 리스트와 클라라 슈만의 존경을 받은 피아노의 거장이다. 1908년에 작곡된 이 곡은 라이네케의 낭만적 음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곡으로 전통적인 형식미와 후기 낭만주의적 성향이 적절히 융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더니즘적 향취를 풍기는 곡이다. 플루트 독주가 슬픔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제 2악장은 벨칸토 아리아 스타일을 보여준다. 제 3악장은 전체적으로 멜로디와 반주가 명료하게 윤곽을 형성하고 있는 한편 리드미컬한 짜임이 돋보인다.

이번 연주회의 하이라이트가 될 슈만의 교향곡 '봄' 은 낭만파 시인 베티거의 '봄의 시' 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곡으로 처음엔 각 악장마다 '봄의 시작' '황혼' '즐거운 놀이' '무르익은 봄' 이란 표제를 붙였지만 작품 출판시에는 제목을 삭제했다. 슈만은 교향곡 '봄' 에서 마치 봄에 피어나는 꽃과 나뭇잎의 봉오리처럼 자연스럽게 그의 내부로부터 싹터 오르는 새로운 봄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했다. 초연은 작곡한 그해 3월 31일 멘델스존 지휘,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관현악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교향곡 '봄' 은 봄의 서막인 희망에 찬 제 1악장, 봄의 신비스런 환상이 감도는 제 4악장도 좋지만 따뜻한 봄의 숨결을 연상케 하는 로맨틱한 제 2악장이 인상적이다. 연주시간은 30분.

▶ **관람료** _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좌석을 미리 예약해주시요.)

▶ **문의** _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47회 정기연주회

●3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봄을 알리는 신춘음악회에 이어 3월 19일 협주곡과 교향곡사에 길이 남을 명곡들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데니스 샤포발로프(Denis Shapovalov)가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아름다운 선율 속에 낭만성과 서정성이 가득 담긴 첼로 명곡 엘가의 '첼로 협주곡 마단조 작품 85'로 첫 무대를 여는 데니스 샤포발로프는 첼로의 거장 로스트로포비치가 '눈부신 탤런트'라고 격찬한 세계적인 첼리스트이다. 연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예리한 테크닉, 놀라운 표현력이 돋보이는 샤포발로프는 1995년 호주의 국제첼버뮤직 콩쿠르에서 영예의 'Best Hope'를 수상하고 2년 후 로스트로포비치 자선 재단의 장학금 수혜자가 되어 화제를 모았다. 특히 1998년에는 제 11회 국제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1등 및 만장일치 골드메달을 수상하여 그만의 특별한 재능을 인정받았다.

2000년 6월 볼티모어에서 열린 세계첼로대회를 통해 미국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샤포발로프는 2001년 9월 뉴욕에서 열린 Web콘서트홀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하여 주목받기도 했다.

샤포발로프는 차이코프스키 심포니 오케스트라, 모스크바 비르투오지 챔버 오케스트라, 모스크바 솔로리스트 챔버 오케스트라,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니의 아카데미 심포니, 런던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도쿄 메트로폴리탄 심포니, 리투아니아 국립 심포니 및 챔버 오케스트라, 브라티슬라바 심포니 등과 협연했다. 2004년부터 2년간 모스크바 국립콘서바토리에서 지휘를 공부하고, 2005년부터 여러 러시아 교향악단을 지휘하면서 지휘자로서의 경력도 쌓았다. 샤포발로프는 지난해 리투아니아 챔버 오케스트라에 지휘자로 초청되었다.

샤포발로프가 들려주는 엘가의 '첼로 협주곡 마단조



데니스 샤포발로프

작품 85'은 1919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엘가 특유의 구상을 간결하게 다루고 있다. 마치 실내악과 같은 단아한 품격을 갖추고 있는 이 곡은 바그너와 같은 화성적 색채감은 물론, 슈만이나 브람스와 같은 내면적 감성을 두루 표현하고 있다.

1부 엘가 첼로협주곡에 이어 2부 무대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함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 10번 마단조 작품 93'을 들려준다. 15편의 교향곡을 남긴 쇼스타코비치는 현재 '제 5번(1937년)'이 가장 널리 연주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작곡자의 개성과 개인적 정서를 충분히 반영한 '제 10번'을 명곡으로 꼽는다.

스탈린 사후 몇 주 후에 작곡에 착수한 이 작품은 그 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이 초연했다. 전체적으로 말려를 연상케 하는 장대한 악상이 지배적인 이 작품은 '어두운 독재의 시대'를 마감하고 자신의 음악세계를 되찾는 전환점이 되었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현악파트 단원들이 가세, 장대한 스케일의 웅장한 하모니를 들려준다. 연주시간은 55분.

▶ 관람료 _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좌석을 미리 예약해주시요.)

▶ 문 의 _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춘음악회

‘飛天’ 동춘서커스 국악에 안기다

●3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박호성

봄은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준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희망과 열정이 샘 솟는 화사한 새봄을 우리 가락에 담아 희망찬 새봄의 모습을 음악으로 들려준다.

수석지휘자 박호성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국악으로 듣는 비발디 사계중 ‘봄’, 부

산대학교 국악과 이종대 교수의 협연으로 듣는 화려한 봄의 소리, 메나리조 피리협주곡과 남산놀이마당의 힘찬 타악선율로 국악 애호가들에게 봄을 전한다.

지난해 신춘음악회에서 언버벌 퍼포먼스 ‘점프’와 국악관현악의 만남을 시도해 큰 박수를 받은 바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2009년 신춘음악회에서는 80년 전통을 자랑하는 국내 유일의 아트서커스 동춘서커스와 국악과의 만남을 시도한다.

1925년 일본 서커스 단원으로 활동

하던 박동춘이 30여명의 조선 사람들을 모아 창단한 동춘서커스는 1960~70년대 단원이 250명이 넘는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다. 동춘서커스를 통해 영화배우 허장강, 코미디언 서영춘, 배삼룡, 백금녀, 남철, 남성남, 장항선, 가수 정훈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스타가 배출되었다.

1970년도 이후 서커스단의 인기가 주춤했지만 1995년 봄 전주 풍남제 공연을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한 동춘서커스는 요즘은 진주 ‘개천예술제’, 진해 ‘군항제’, 밀양 ‘아랑제’, 강릉 ‘단오제’, 경주 ‘신라문화제’, 공주문화제, 충무 ‘한산제’ 등에 빠짐없이 참가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흥겨운 연주와 함께 공중 줄타기를 비롯해 공중 그네타기, 유연성 묘기 등 볼거리와 스타일이 넘치는 화려한 곡예를 선사할 예정이다.

전원적인 서정과 목가적인 풍경을 담은 ‘메나리조 피리협주곡’을 선사할 이종대는 중요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 이수자로 우리 가락의 맥을 잇고 있다. 흥겨운 타악 리듬이 벌이는 즉흥적인 놀음에 절로 흥이 나는 신명나는 소리판을 펼칠 남산놀이마당은 서울국악대전, 전국국악대전,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은상을 수상한 젊은 타악팀으로 현대인들에게 흥겨운 타악의 매력을 전해주고 있다.



▶ 관람료 _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좌석을 미리 예약해주시요)

▶ 문의 _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극단 제 34회 정기공연 무엇이 될고하니

●4월 2일-4일 목-토요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극단이 장승설화를 바탕으로 우리네 삶을 신명나게 풀어낸 연극 '무엇이 될고하니'로 2009년 관객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연출가 김정옥이 지난 1978년 새로운 연극형식으로 첫 선을 보인 집단창작극 '무엇이 될고하니'는 그 해 대한민국 연극제 작품상, 연출상, 한국일보 연극영화 대상, 연출상 등을 수상해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달래와 껍쇠가 죽어서 장승이 되었다는 전래 민담에서 소재를 가져온 '무엇이 될고하니'는 우리민족의 고유사상인 한을 체념과 포기가 아닌 이성을 넘어서 저승까지 이어지는 저항의식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단순히 희곡을 무대에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출자와 연극자가 연습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창작하는 집단창작극 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연기자들의 개성과 다양한 끼를 만날 수 있다.

30년의 시간을 넘어 부산시립극단만의 특색을 살려 재창작되는 이번 무대는 밀양연극촌 예술감독인 연출가 이윤택과 독창적 형식을 끊임없이 시도해온 부산시립극단 수석연출가 채윤일, 그리고 동래야류 예능보유자인 김경화 등 한국 최고 스텝들의 만남으로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연출가 이윤택이 부산의 전통연희양식인 동래야류를 도입해 '무엇이 될고하니'를 새롭게 구성, 원작과는 다른 부산의 소리와 춤, 사물놀이 장단이 어우러지는 신명넘치는 무대를 만날 수 있다. 또, 두 주인공의 비극적 사랑이야기 속에서도 시골장터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각설이, 약장수, 점쟁이, 광대 등이 출연, 익살맞은 입담으로 관객들에게 시종일관 웃음과 재미를 선사한다.

- 원작 대본구성/김정옥(국제극예술협회 세계본부 명예회장,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연출/채윤일(부산시립극단 수석연출가)
- 부산시립극단 대본구성/이윤택(동국대학교 교수, 밀양연극촌 예술감독)
- 동래야류 연희지도/김경화(중요무형문화재 제 18호 동래야류 예능보유자), 이돈희(부산시립극단 단원)
- 악사/이선구 외 해미르예술단
- 출연/부산시립극단



▶ 관람료 _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좌석을 미리 예약해주시십시오)

▶ 문의 _ 부산시립극단(607-6136),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27th 부산연극제

●3월 26일(목)-4월 15일(화)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야외무대, 시민회관 소극장·야외무대



부산연극인들의 최대축제 '제 27회 부산연극제'가 3월 26일 그 화려한 축제의 막을 연다. 오는 4월 15일까지 부산문화회관과 시민회관에서 펼쳐질 이번 부산연극제는 2008 부산연극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극단 맥을 비롯해 교사극단 한새벌, 부산연극제작소 동녘, 극단 하늘개인날, 극단 에저또,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극단 도깨비, 극연구집단 시나위, 극단 누리에 등 부산지역 9개 극단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친다. 이번 연극제에서는 혼란스럽고 불합리한 시대상황, 고령화사회 등 시대상을 반영한 작품에서부터 창작마당극까지 다양한 창작작품들이 초연된다.

개막 축하공연으로는 2008년 한국 신연극 100주년을 맞아 선보인 박근형 연출의 신작 '너무 놀라지 마라' (3월 28일~29일)가 무대에 오르며, 자유 참가작으로 오페라제작소 밤비니의 오페라 '히어로 베토벤' (3월 27일~28일), 김정원 춤소리예술단의 전통춤 '김정원의 춤 향' (4월 14일)이 펼쳐진다.

이밖에도 연극의 이해를 돕고 부산 시민들의 연극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개최된 '제 2회 부산시민연극제', 역대 부산연극제 대상 수상작 전시회, 부산연극정보관, 관객과의 토론회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열린다. 부산시민연극제는 순수 아마추어 단체가 30분 이내 작품을 공연하게 된다.

특히 이번 연극제에서는 복지시설 등 문화적 소외계층을 무료로 초청하고, 부산연극제 프로그램 판매와 교통카드를 통한 모금운동을 통해 사회적 소외계층의 문화체험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제 27회 부산연극제 주요일정

- ▶ 개막식 3월 27일(금) 오후 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 시상 및 폐막식 4월 15일(수) 오후 7:00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 ▶ 역대 부산연극제 대상 수상작품 사진전시회 3월 27일(금)~4월 12일(일) 시민회관 소극장 로비
- ▶ 세미나 4월 7일(화) 오후 1시 30분 부산교육대학교 학술정보관 세미나실
- ▶ 제 2회 부산시민연극제 4월 4일(토)~ 6일(월) 시민회관 소극장
※참가신청 기간/3월2일(월)~9일(월)

- ▲ 2008 부산연극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극단 맥 '환생신화'
- ▼ 2009 부산연극제 개막축하공연으로 선정된 극단 골목길 '너무 놀라지마라'

- ▶ 관람료 _ 균일 10,000원 (축하공연 일반 30,000원·대학생 20,000원·청소년 10,000원 / 자유참가작 '히어로 베토벤' R석 30,000원·일반 20,000원, '김정원의 춤 향' 일반 20,000원·청소년 10,000원)
- ▶ 문 의 _ 부산연극협회(645-3759, www.bstheater.or.kr)

제 27회 부산연극제 참가작

▶ 축하공연 극단 골목길 '너무 놀라지 마라'

3월 28일(토) 16:00, 19:00, 29일(일) 15:00, 18: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작, 연출/박근형 · 출연/장영남, 이규희, 김영필, 김동현, 김주완 외)

어느 소시민 가족의 삶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과 팽팽한 극적 긴장감으로 연극적 재미를 선사하는 작품.

▶ 경연작

■극단 한새별 '호모 에로티쿠스'

3월 30일(월) 19:30, 31일(화) 16:30, 19:30 시민회관 소극장

(작/우혜선 · 연출/김병철 · 출연/정경화, 주용욱, 박경미, 황용대, 이은주, 여수진 외)

어느 실버타운을 배경으로, 간과되고 있는 노인들의 욕망과 욕구를 그려낸 창작극.

■부산연극제작소 동넨 '밴드래기 아기'

3월 31일(화) 19:30, 4월 1일(수) 16:30,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작/조인숙 · 연출/심문섭 · 출연/박지현, 정애경, 양효윤, 김현주, 강원재, 김정원, 김아람)

순박하다 못해 모자라보이는 흥순의 성장기를 통해 인간관계 회복을 이야기한 신명나는 마당극.

■극단 하늘개인날 '황혼의 블루스'

4월 2일(목) 19:30, 3일(금) 16:30, 19:30 시민회관 소극장

(작/최송림 · 연출/김태호 · 출연/권철, 이정허, 이현옥, 권혁진, 김은경, 안지영, 허경진 외)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들을 주인공으로, 소통을 통한 하나되는 사회를 꿈꾸는 작품.

■극단 에저또 '그래도 달은 떠오른다'

4월 3일(금) 19:30, 4일(토) 16:30,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작/곽노홍 · 연출/최재민 · 출연/이지훈, 손미나, 구윤희, 신영재, 김현자, 김상호, 김지연)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한 노인 일가를 통해 물질만능주의에 붕괴되어가는 가족의 현재를 그린 작품.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자갈치 자갈치'

4월 6일(월) 19:30, 7일(화) 16:30,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작/홍성모 · 연출/김세진 · 출연/최은영, 이윤희, 주홍식, 장명갑, 김혜원, 홍충민, 도정우 외)

변화하는 현대사회속에서 옛추억거리로 남아있는 향량한 자갈치와 자갈치 아지매의 어제와 오늘을 통해 부산사람들의 고집과 집념을 그린 작품.

■극단 도깨비 '사이버 세상을 만나다'

4월 8일(수) 19:30, 9일(목) 16:30, 19:30 시민회관 소극장

(작, 연출/김익현 · 출연/전민수, 백정임, 차일환, 김민성, 최은실, 박성준)

2008 부산연극제 무대에 올려졌던 '울 동네 합창단' 시즌2. 또 다른 세상인 사이버세계와 만난 울 동네 합창단의 좌충우돌 에피소드가 펼쳐진다.

■극연구집단 시나위 '대숲에는 말(言)이 산다'

4월 9일(목) 19:30, 10일(금) 16:30,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작/김문홍 · 연출/오정국 · 출연/박상규, 백길성, 백상희, 박근태, 이은영, 서성원, 김혜정 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로 잘 알려진 신라 경문왕의 설화를 연극적인 특성을 살려 해학적으로 풀어낸 작품.

■극단 누리에 '몽실'

4월 11일(토) 19:30, 12일(일) 16:30, 19:30 시민회관 소극장

(작/송희연 · 연출/강성우 · 출연/강금봉, 이지혜, 최성희, 최현경, 황정미)

장 주네의 '하녀들'을 우리 현실에 맞게 새롭게 그려낸 작품.

하녀 자매와 주인 모녀의 관계를 노예의 변증법적 관계와 심리적, 성적 측면으로 풀어낸다.

■극단 맥 '내 마음의 풍경'

4월 12일(일) 19:30, 13일(월) 16:30,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작, 연출/이정남 · 출연/심미란, 강숙하, 허정현, 권은하, 배기철, 유상훈, 허신애 외)

제주도 무가 중 변소귀신의 내력 이야기를 토대로 당산나무, 논두렁, 골목길 등 어린시절로 떠나는 추억여행.

▶ 자유참가작

■오페라제작소 밤비니 '히어로 베토벤'

3월 27일(금) 19:30, 28일(토) 16:30, 19:30 시민회관 소극장

(연출/김성경 · 출연/양승엽, 장은영, 김나정, 오세민, 권미경, 박재현, 김정권, 권유진 외)

베토벤의 생애를 주요 작품과 함께 꾸민 음악극.

■김정원 춤소리에술단 '김정원의 춤 향'

4월 14일(화) 19:30 시민회관 소극장

(연출/김정원 · 출연/김정원, 이성훈, 유금선, 남상일, 윤정미 외)

살풀이춤, 성주풀이, 산조춤, 태평무, 동래학춤, 진주 교방굿거리 등 우리의 전통춤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



부산 전통문화의 보고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김은경 신임이사장

한 분야에 일가를 이룬 예인, 장인이 되는 것은 타고난 끼와 재능은 물론 남다른 열정, 집념 없이는 분명 불가능한 일이다.

3대를 이어 부산의 춤을 전승, 보존하고 있는 전 신라대학교 김온경 교수(71)가 그의 춤인생 60년의 정신적 모태가 된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동래의 마지막 한량으로 불리는 문장원(92) 전 이사장 후임으로 지난 2월 8일 부산민속보존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부산의 전통문화 전승을 책임지는 큰 역할을 맡게 되었다.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는 나의 춤 인생을 함께 해온 조직입니다. 오랫동안 협회에 몸담고 있으며 가져왔던 생각이 이제 날개를 달았다고 할까요. 그동안 해왔던 만큼 부산의 전통 예술이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는 김온경 이사장이 발굴, 전승한 동래고무(부산시무형문화재 제 10호)를 비롯해서 부산의 전통 예술의 상징인 동래야류(중요무형문화재 제 18호), 동래학춤(부산시무형문화재 제 3호), 동래지신밟기(부산시무형문화재 제4호), 동래 한량춤(부산시무형문화재 제 14호) 등 무형문화재 5종목을 전승하고 있다.

강태홍류 산조춤의 유일한 계승자인 김온경 이사장은 부산 춤의 선구자인 아버지 추강 김동민 선생의 영향으로 11세 때부터 춤을 배웠다. 당시 양산 동면의 대지주 외아들로 태어나 일본 명치대 법학부를 졸업한 아버지는 김동민은 선대의 가업 계승보다 풍류를 즐겼다. 소외당하던 전통예인들의 예술세계를 높이 사 당시 동래권번에서 가야금과 춤을 가르친 강태홍 명인을 비롯해 전국의 예인들과 교류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동래지역의 전통예술을 자연스럽게 배웠다.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는 아버지와 함께 다니던 중 1973년 5월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린시절 엄하게 춤을 가르치던 아버지 때문에 춤이 싫어졌던 김온경 이사장은 아버지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 결혼과 함께 부산을 떠났지만 춤은 운명처럼 그를 다시 찾아왔다.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던 그는 위암 진단으로 위 절단 수술을 받으면서 다시 춤을 받아들였다. 3남매를 키우면서 늦은 나이에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과에 진학한 김온경 이사장은 그렇게 이론과 실기로 중무장

한 부산의 민속춤 연구지도자가 되었다. 부친이 어린시절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는 큰딸 여숙에게 예인의 기질을 물려주었다.

대학 재직시 김온경 이사장에게는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와 동래의 전통예술이 최고의 연구과제였다. 연구성과들이 ‘경남가면무의 미적연구’ ‘한국민속무용연구’ ‘부산·경남 향토무용총론’ ‘동래고무총람’ 등 그의 저서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현재 동래고무 보유자인 김온경 이사장은 1986년 마지막 동래권번의 명기였던 김해월과 석국향 두 할머니와의 만남을 잊을 수 없다. 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자칫 살아질 수 있었던 동래고무를 기록하고 그 춤을 전수받아 재연하는데 성공했다. 동래고무는 고려초기 관청 여악(女樂)을 관장했던 교방청(敎坊廳)의 기생들에 의해 행해졌던 향악정재(鄕樂呈才)인 무고(舞鼓)가 동래감영의 교방으로 전래되면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추어졌던 북춤이다. 현존하고 있는 진주검무, 진주포구락무, 승전무 등과 함께 교방무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연희는 내가 즐겁지 못하면 내 춤을 보는 사람도 즐겁지 않은 것이지요.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모든 가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전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종목을 한 단체에서 운영하다 보니 종목마다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는 김온경 이사장. 다섯 종목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원형을 살리면서 전승, 보존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숙제이다. 종목별로 전수학교를 지정해 전수교육을 더욱 체계화시키고 시대에 맞게 대중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부산의 정신이 살아있는 전통을 지키고 보존해나가는 것이 인생 마지막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전통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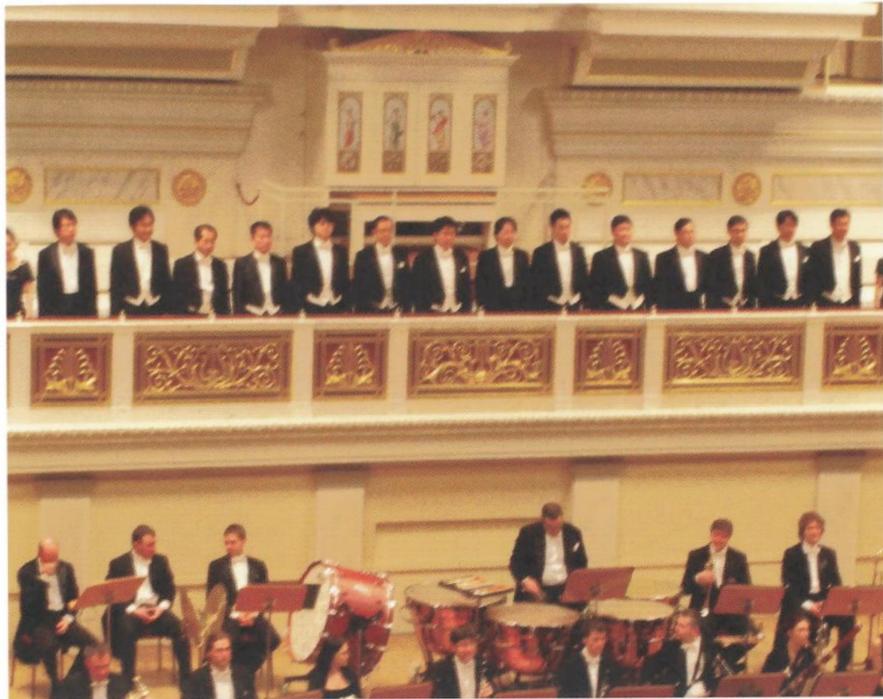
즐거운 마음으로 춤을 춘 탓에 위암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김온경 이사장. 녹녹치 않는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며 오늘도 금강공원 부산민속예술관을 오르내린다. 지금의 그를 잊게 한 춤과 춤추는 즐거움을 부산시민들에게도 전하고 싶다.

콘체르트 하우스 Konzerthaus



인류애와 형제애를 보여준

부산시립합창단 독일 공연



김지혜 _ 독일 통신원

독일은 음악의 거장 베토벤을 사랑한다. 그리고 음악의 신약 성서라고 일컬어지는 그의 마지막 교향곡 9번 ‘합창’은 독일인들에게는 가슴 벅차는 자랑이다. 그 이유는 독일의 음악 문화 유산을 넘어서서 전쟁과 고통이 끊이지 않았던 세계 역사를 향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전설적인 첼로의 거장 로스트로포비치(Mstislav Rostropovitsch)는 “모든 사람들은 일년에 한번씩은 베토벤 교향곡 9번을 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극동 지역의 총성과 무고한 인명들의 신음 소리가 가시지 않은 시간에, 지구의 반대편에서 온 부산시립합창단과 세계 각국의 음악가들로 결성된 국제 오케스트라가 1월 19일부터 23일 사이에 독일 분단의 산 현장이었던 베를린 심장부에 위치한 콘체르트 하우스(Konzerthaus)를 필두로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뮌헨 그리고 함부르크를 횡단하면서 베토벤이 기원했던, 그리고 모든 인류가 희망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음악이라는 인류 공통 언어로 전달했다. 독일 시민들은 베토벤이 꿈꿔왔던 ‘모든 인류가 형제가 되는’ 이 비전을 듣기 위해 신년음악회장을 찾았다.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독일에서 음악 수업을 받고 있는 필자도 부산시립합창단 연주소식에 마냥 들떴다.

오케스트라 지휘자 유스투스 프란츠(Justus Frantz)는 20년 이상 국제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로서 명성을 누리고 있다. 피아노의 거장인 빌헬름 캠프(Wilhelm Kempff)로부터 사사를 받았고 1967년 ARD 국제 콩쿠르 입상을 시작으로 1970년에는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와 레오나르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이 지휘하는 뉴욕필하모니와 함께 연주하는 등 본격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활동했다. 이후 상 페테르스부르크,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세계 우수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유스투스 프란츠는 그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보급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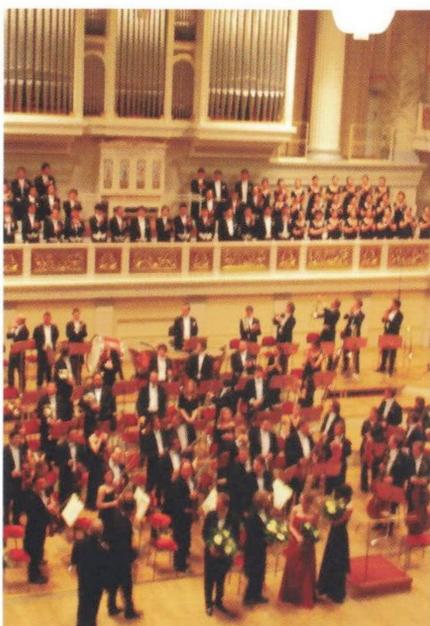




▲ 부산시립합창단은 국제 필하모니와 독일 4개도시 순회연주를 가졌다.(사진은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연주)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를 주관하는 데도 앞장 서고 있다.

특히 숨어있는 젊은 신인 음악가들을 발굴, 기용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성과가 바로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 화음을 맞춘 국제 필하모니(Philharmonie der Nationen)이다. 프란츠는 번스타인의 모토였던 “Let’s make music as friends”에 감명을 받아 1995년 5개



대륙, 4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 필하모니를 창설하게 된다. 국제 필하모니는 전 세계 순회공연과 오디션을 통해서 각 나라들의 젊고 우수한 연주자들에게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3년 동안 1,000번 이상의 공연을 가졌고 1998년 UN 사무국장 코피

아난의 초대로 ‘미 합중국의 날-Day of United States’에 있었던 뉴욕에서의 공연은 최고의 성과로 여겨진다. 2003년에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의 하나인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베토벤의 자필 악보대로 녹음했고 그 기념 행사로 2009년 1월 19일 부산시립합창단과 공연했던 베를린 콘체르트 하우스에서 특별 연주를 갖기도 했다.

부산시립합창단과 국제 오케스트라의 열정적인 연주는 비행기로 불과 몇 시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자행되는 전쟁의 잔혹함과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개개인이 직면한 크고 작은 인생의 무게로 차가워져 가는 우리의 마음에 희망의 불길을 지피는 듯 했다.

1악장은 마치 천지창조 전의 세상 - 암흑과 땅과 하늘이 구별되지 않은 혼돈과도 같다. 베토벤이 이 세상 조화가 깨어졌다고 말한 것처럼 1악장은 인류의 장례 행렬을



표현하고 있다. 2악장에서는 인간의 향락과 꿈을 마치 디오니소스의 축제에 비견해 묘사하고 있으며 3악장은 창조주의 약속과 은혜가 표현되었다. 하이라이트인 4악장에서는 고전 교향곡의 형식이 여지없이 파괴된 채 합창이 삽입되었다. 호른의 합창 모티브에 이어 “오 벗들이여, 이 가락이 아니라 더욱 즐거운, 기쁨에 넘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자!”로 시작되는 4악장은 창조주의 약속의 실현과 환희가 마치 어두운 구름을 뚫고 비쳐지는 뜨거운 태양처럼 표현된다. 부산시립합창단의 연주는 이 교향곡의 정수를 그대로 표현했으며 마치 잠재된 에너지의 폭발과도 같이 공연장을 울렸다.

“가혹한 세상이 갈라놓은 것을 창조주는 다시 결합시키는 도다. 그대의 부드러운 날개가 머무는 곳에 모든 인류는 형제가 되리라. (...) 다 함께 환희의 노래를 부르자! (...) 포용하라, 만인이여! 온 세상에 입맞추라! (...) 형제여 별의 저편에는 사랑하는 창조주가 계시니 (...) 그를 찾으라. 별

이 지는 곳에 그가 계신다.”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 공연은 단지 심금을 울리는 음악이 아니라 영혼을 적시는 선물이었다. 관객들은 그 선물에 대한 답례로 가슴에서 우리나라오는 기립 박수와 발을 구르는 열렬한 성원을 선사했다. 연주장은 음악을 통해서 다양한 국적과 언어, 그리고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서 ‘형제’가 되는 뜨거운 감동의 장소가 되었다.

넘치는 음악의 세례를 받은 그들은 공연이 끝난 후에도 마치 가슴 속에서 울리고 있는 남은 한 음까지도 간직하려는 듯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독일인들은 가슴 벅차오른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돌아갔다. 이 음악의 힘이 그들에게 2009년 한 해를 설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임을 그들 뒷모습의 퍼진 어깨에서 느낄 수 있었다.

‘큰’ 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은 다시 한번 그 저력을 국제 무대에서 마음껏 보여주었다.



모차르트 W.A.Mozart의 피가로의 결혼 (Le Nozze di Figaro)

김 홍 승 _ 대구 오페라 하우스 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오페라 교수

자! 드디어 오페라를 하나씩 알아 볼 때가 된 것 같다. 저번 글에도 이야기 하였듯이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엔 오페라 부파(Opera Buffa)가 가장 적합한 장르가 아닐까 생각한다. 일단 '재미'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페라 부파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작곡가, '음악의 신동'이라 불리는 모차르트(W.A.Mozart)의 오페라 중에서 알아보겠다. 그에게는 3대 희극이라 불리는 오페라들이 있는데 그것은 '피가로의 결혼' (Le Nozze di Figaro), '돈 조반니' (Don Giovanni), '코지 판 투테' (Così fan tutte) 이렇게 3개인데 그 중 가장 걸작으로 칭하는 '피가로의 결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피가로의 결혼'은 총 4막의 오페라 부파이며 1786년 5월 1일 빈의 부르크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보마르세(P.A.Baumarchais)가 쓴 3부작 중 제 2작을 다 폰테(L. da ponte)가 고친 것이다. 제 1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시니(G.A.Rossini)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Il Barbiere di Siviglia)이다.

등장인물로의 설명은

- 피가로(Figaro) : 원래는 세빌리아에서 이발사를 하고 있었으나 백작부인과 백작을 이은 공으로 백작의 시종이 되었다. 수잔나와의 결혼을 앞두고 매우 즐거워하고 있다. 하지만 백작이 수잔나를 눈독 들인다는 사실을 알고 백작을 골탕먹일 일을 꾸민다.
- 수잔나(Susanna) : 백작부인의 시종으로 피가로의 약혼녀이며 얼마 전부터 백작이 자신을 눈독 들여왔고

초야권¹⁾을 되살려 자신을 차지하려 하는 것을 눈치채고 있다.

- 알마비바 백작(II Conte Almaviva) : 부인인 로지나를 사랑했지만 갈수록 싫증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는 수잔나에게 막대한 관심과 흑심을 품고 있다. 질투심이 아주 많다.
- 백작부인 로지나(La Contessa[Rosina]) : 남편의 사랑으로 결혼을 했으나 남편의 바람기를 알고 피가로와 수잔나와 짜고 함께 일을 꾸미나 나중에는 남편인 백작을 용서하는 마음넓은 인물이다.
- 케루비노(Cherubino) : 백작의 어린 시동이다. 이제 막 이성애 눈을 뜨기 시작한 소년이다. 그는 여자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고 수작을 건다. 케루비노를 내가 '그'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극중의 케루비노가 남자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나? 하신다면 그의 배역은 메조소프라노 혹은 소프라노 성부인 여자들이 주로 한다. 바람둥이 소년의 역할을 사실은 여자가 한다는 것이 참으로 흥미있다.(카운트 테너인 남자가 배역을 맡을 때도있다.)
- 마르첼리나(Marcellina) : 시녀들의 우두머리로 나이가 많으나 나이 값을 못한다. 피가로에게 돈을 빌려주며 "돈을 갚지 못하면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둔 적이 있다. 그녀는 피가로의 결혼을 훼방 놓을 동업자로 바르톨로를 선택한다.
- 바르톨로(Bartolo) : 의사. 마르첼리나의 옛 애인. 로지나의 후견인으로 자신과의 결혼을 강요했으나 피가로로 인해 로지나는 백작과 결혼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피가로를 싫어한다.

- 바질리오(Basilio) : 음악가. 백작부인의 음악선생님이기도 하지만 백작의 심부름도 한다.
- 돈 쿠르시오(Don Curzio) : 재판가.
- 안토니오(Antonio) : 백작의 집 정원사. 언제나 술과 함께 살고 있다.
- 바르바리나(Barbarina) : 안토니오의 딸. 케루비노를 좋아한다.

주·조역만 총 11명이다. 상당하지 않은가? 등장인물이 많은 만큼 등장인물이 어떤 사람들인지 꼭 한 번 읽고 줄거리에 들어가기 바란다.

그렇다면 간략한 줄거리를 적어보도록 하겠다.

1막 피가로는 사랑하는 수잔나와 결혼하는 오늘이 너무 행복하다. 게다가 백작님이 방까지 마련해주신 것이다. 하지만 수잔나는 백작이 왜 이 방을 내어줬는지 알고 있다. 백작이 초야권을 내세워 자신을 차지하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은 피가로는 격분하며 백작을 골탕 먹일 계획을 짜러나간다.

2막 백작부인은 백작이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음을 탄식하고 있는데 피가로가 나타나 수잔나와 백작부인에게 계략을 일러준다. 첫번째는 백작에게 부인이 오늘밤 밀회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읽은 사이 피가로의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로지나에게 수잔나의 옷을 입혀 백작을 홀리고는 함께 나서서 망신을 주자는 것이다. 그때 마르첼리나와 바르톨로가 와서 각서를 내밀며 결혼을 중단하라 하고 백작은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3막 재판이 시작되고 ‘돈을 갚을 것인가 마르첼리나와 결혼을 할 것인가?’ 하는 판결로 피가로가 궁지에 몰리자 그는 나는 부모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없는 몸이며 ‘어릴 때 도적에게 납치된 귀족의 아들이다’며 팔을 걷어 ‘이 문신이 증거다’라고 말하는데 그 문신을 보고 눈이 휘둥글해진 2명이 있었으니 그것은 소송을 건 마르첼리나와 바르톨로인 것이다. 마르첼리나가 바르톨로와 사귄 때 낳았던 아이가 피가로인 것이다. 한편 백작부인은 수잔나와 짜고 백작을 어두울 때 정원사로 유인해 꼼짝 못하게 하

자고 합의하고 결혼식 도중 수잔나는 백작에게 몰래 편지를 전한다.

4막 답장 대신 편지에 꽃힌 편을 돌려달라는 편지 내용을 보고 바르바리나에게 심부름을 시킨다. 그 편을 잃어버려 찾고 있는 바르바리나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피가로는 수잔나가 백작과 밀회하는 현장을 잡기위해 정원에서 숨어있고 수잔나는 밀회를 기다리는 척 나와있다가 백작부인과 옷을 바꿔입는다. 이때 나온 백작은 백작부인이 수잔나인 줄 알고 그녀에게 온갖 유혹의 말과 비싼 반지를 선물한다. 한편 피가로는 백작부인이 백작부인의 옷을 입고있는 수잔나임을 알아채고 그녀에게 다가가 마치 백작부인과 피가로가 밀애하는 듯 꾸민다. 그것을 본 백작이 ‘절개를 지키지 못한 댓가를 치루어야 할꺼요!’ 하고 외치나 수잔나임을 알고 놀라고 수잔나인 줄 알았던 백작부인이 반지를 보여주니 깜짝 놀란다. 백작은 제발 용서해달라며 빌고 백작부인은 용서를 해주면서 극은 마무리가 된다.

참으로 재미있지 않은가? 물론 걸만 봐서는 바람둥이 백작을 속여 백작부인이 다시 남편의 사랑을 받는 내용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시대의 귀족들에 대해 교묘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보마르세는 프랑스 혁명을 유도해 낸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힐 만큼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글을 많이 썼는데 이 원작 또한 ‘부도덕한 희곡’으로 찍혀 상연 금지되었으나 다 폰테가 고친 대본을 보고 상연 허가가 떨어졌다. 이것을 모차르트는 음악으로써 보마르세의 의도를 확실히 살렸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이 유명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자! 지금까지 글 만으로의 ‘피가로의 결혼’을 보았으니 이제는 오페라로서의 ‘피가로의 결혼’을 만나 보았으면 한다.

1) 초야권 : 봉건시대의 악습으로 서민이 결혼하기 전에 귀족(영주 등 권력자)들이 신랑보다 먼저 신부와 동침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미 백작은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되어있다.

일어나서 즉시 작업하라 -

영국 팝아트의 기수 데이비드 호크니

David Hockney

채 경 혜 _ 한국판화예술연구원 대표



할리우드 힐즈 하우스, 1980

“일어나서 즉시 작업하라.”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 1937~)의 작업실 침대 옆에 붙어 있는 글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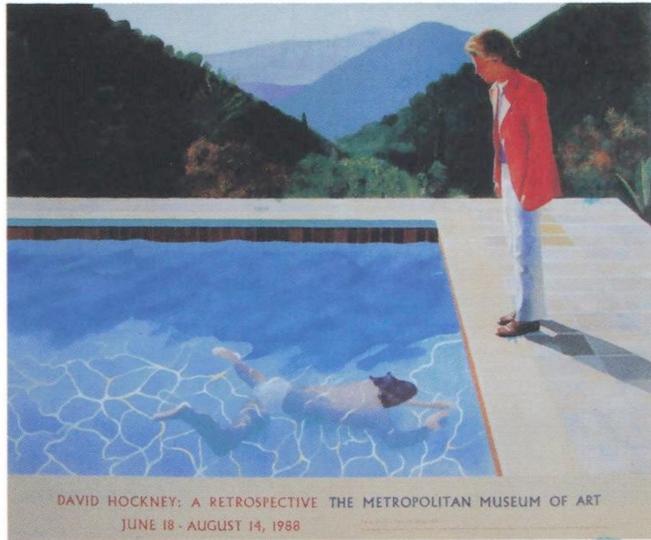
데이비드 호크니는 영국 중산층 출신으로 브래드포드 예술대학과 런던왕립예술학교를 수학했으며 앨런 존스, 키타이 등과 함께 1960년대 초반 런던왕립예술학교에서 태동된 영국 팝아트의 기수로 불린다.

1960년대 영국은 비틀스로 대표되는 영국 대중문화의 전성기를 누렸다. 호크니는 1960년대 중반 이미 20대에 ‘닉 와일더의 초상’ ‘텀벙’ 등과 같은 수영장 이미지의 작품으로 유명해졌는데, 그의 수영장시리즈는 우리나라 카페 벽면에도 심심찮게 장식했듯이 1990년대에 와서도 아트포스터나 판화 전문점의 단골 메뉴였다. 아마도 그림 안의 낭만적이고 유니섹스적인 분위기가 1990년대 스타일과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호크니는 통속적인 이미지를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스냅사진과도 같은 정경으로 능숙하게 끌어내어 재치 있게 표현했는데, 절제된 기법의 사용, 빛에 대한 관심, 팝아트와 사진술에서 끌어낸 솔직하고 평범한 사실주의가 작품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리에 방영중인 미국 TV드라마 시리즈물 속에 호크니의 낯익은 판화가 간간히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미국적 취향이 짙은 그의 판화작품들이 아트포스터로 제작되어 많은 미국 가정의 거실을 장식하고 있는 현실의 반향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1961년 뉴욕을 방문한 호크니는 자유로운 미국사회로부터 자극을 받아 머리카락을 하얗게 표백하면서 외모에서부터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시인 ‘휘트먼’을 좋아해 그를 주제로 한 동판화 ‘나와 나의 영웅들’을 제작하였고, 이 동판화를 계기로 24세에 기네스(Guinness)



예술가의 초상(두 사람이 있는 풀장), 1971



'트리스탄과 이졸데' 제1막 배모형, 1986~1987

상을 수상한다. 그리고 같은 해 그의 우상이었던 '휘트먼'과 '마하트마 간디'를 주제로 한 에칭 '나와 나의 영웅들'을 제작하였는데 자신을 포함한 세 인물을 각각의 판에 새겨, 동성애를 표방하는 휘트먼과 채식주의자인 간디의 성향이 자신과 같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서는 미국에 체류할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했는데, 유명한 판화가 윌리엄 호가스의 '레이크의 행적, 1735'을 모델로 하여 16장의 에칭연작 새로운 '레이크의 행적, 1961~1963'을 제작했다. 상상 속의 이미지를 통해 교훈적 메시지를 담은 이 작품은 한 젊은 화가가 지방도시에서 대도시로 도착했을 때의 순수한 마음으로 아름답고 세련된 도시를 바라보면서 내질렀던 탄성감과 같은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1964년, 호크니는 로스엔젤레스로 이주했다. 영국의 차가운 태양과 산타 모니카 해변의 눈부신 태양은 확연히 달랐다. 아름다운 날씨, 가벼운 라이프스타일, 햇빛에 반짝이는 수영장 등... 호크니는 햇빛이 가득한 이곳에 깊은 인상을 받아 여러 장의 수영장 시리즈를 제작하게 되는데, 평범한 일상을 소재로 밝고 부드러운 색으로 오히려 단조롭게 사물을 묘사했다. 그리고 1966년 여름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드로잉 강의를 하면서 그림 속 주인공인 17살의 피터를 만난다. 그 후 5년 동안 강렬한 에로티시즘에 빠져 에칭 작업을 시작으로 드로잉과 사진 등으로 두 남자를 주제로 한 인체묘사에 주력함으로써 자신의 동성애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작품 속에 드러냈다.

다재다능한 그는 무대 디자인과 저술에도 관심을 보였다.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무대제작, 모차르트의 '마적', 스트라빈스키의 '방탕아의 추이'의 무대디자인,

사실주의 대가들의 작품이 천재성이 아니라 실상은 거울, 렌즈 등의 광학도구의 힘 덕분이라고 단언한 '명화의 비밀, 2001', '호크니가 쓴 호크니, 1976', '중국 일기, 1983', '호크니의 무대 미술, 1983' 등의 저술로 더욱 유명해졌다.

호크니는 1954년 제작한 석판화 자화상 이후 일생 동안 많은 초상화를 그렸는데, 대부분의 작품이 인물의 정체성이나 존재에 대한 단순한 환기를 넘어서고 있다.

또 피카소를 존경하여 큐비즘을 새롭게 해석하여 작품에 적용을 시도하였는데, 피카소가 죽자 경의의 표시로 두 개의 에칭 자화상을 제작했다. '피카소에의 경의, 1973'는 드로잉 포토폴리오를 피카소에게 가지고 가는 다소 나이든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이 작품은 현대판화 포트폴리오로 출판되었다.

1982년 한 큐레이터의 제안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스냅으로 찍은 작은 사진을 연결하는 작품을 발표했으며, 그의 이러한 사진에의 접근은 많은 사진가들에게 영향을 주어 사진이 새로운 방법으로 예술에 이용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14세기 중국의 두루마리 풍경화의 확장된 원근법에 영감을 받아 '움직이는 초점, 1985'이라는 석판화 연작을 제작하였으며, 1989년부터 복사기를 이용하여 판화와 같은 직접적인 형태인 '홈 메이드 프린트' 작업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양식과 매체에의 실험을 끊임없이 추구하였다.

데이비드 호크니는 1991년 영국왕립미술원 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2006년 보스턴미술관과 로스엔젤레스 카운티뮤지엄, 런던왕립초상화미술관에서 대규모 순회 회고전이 열려 그의 작품을 재조명하였다. 호크니는 미국에서 치열한 작가정신으로 대중의 사랑을 얻은 예술인으로 우뚝 서있다.



복잡한 태생, 복잡한 음악

김문경 _ 음악 칼럼니스트, '구스타프 말러' 3부작 저자

구스타프 말러(1860~1911)는 현재 베토벤, 브람스를 잇는 중요한 교향곡 작곡가로 대접받고 있다. 차이콥스키나 드보르자크처럼 대중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말러의 1번 교향곡 '거인'이나 아다지에도토로 유명한 교향곡 5번만큼은 '비창'이나 '신세계' 못지 않게 자주 연주되고 있다. 길고 시끄럽고 정신 사나운 음악으로 악명 높았던 말러의 음악이 이제 자연스럽게 애호가들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요즘 세상이 그만큼 불안하고 심란하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다.

말러를 간략하게 소개할 때마다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바로 그의 태생 문제이다. 말러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혹은 지휘자'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그는 결코 모차르트나 슈베르트처럼 순수한 오스트리아 혈통이 아니다.

말러가 태어난 곳은 체코에 있는 칼리슈트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고 대부분의 어린 시절을 보낸 곳 역시 체코의 이글라우이다. 그렇다고 말러를 스메타나나 드보르자크처럼 본격적인 체코 작곡가로 보지는 않는다. 이글라우는 체코 가운데에서도 독일어를 사용하는 일종의 '언어적인 섬'을 이루고 있었고 말러는 자연스레 오스트리아의 국어인 독일어를 구사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수학하고 10여년간 빈 궁정 오페라극장에서 활동했으니 정신적으로는 거의 오스트리아 사람이나 다름없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복병이 있다. 말러의 부모 모두 유대인 집안 출신으로 말러의 근본 혈통을 따지자면 멘델스존이나 마이어베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인 것이다. 즉 말러를 정식으로 소개하자면 '유대인 혈통, 체코 태생의 오스트리아 작곡가 혹은 지휘자'가 된다. 사회적인 소속이 이렇게 애매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심각한 정체성 고민을 겪는다.

말러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는 3중으로 고향이 없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들 중에서는 보헤미안이요, 독일인 가운데에서는 오스트리아인이요, 세계에서는 유대인입니



다. 어디를 가도 이방인이요,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태생 때문인지 말러의 음악 속에는 독일 음악, 집시 음악, 체코 음악이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다. 패션으로 말하자면 쉬폰 원피스에 가죽 라이더 재킷을 매치하고 퍼(fur) 머플러를 두르는 식으로 여러 소재를 혼합하는 믹스 & 매치룩에 가깝다. 말러 음악의 이 같은 다양성이 해체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더욱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글쓴이 김문경은 말러의 생애와 교향곡 분석을 집대성한 '구스타프 말러' 3부작을 완간하여 음악애호가들의 찬사와 함께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언론매체에 기고와 저술활동을 통해 음악칼럼니스트로서의 지평을 넓혀온 김문경은 지난해 클래식 음반 전문매장 풍월당에서 음악강의를 개설하여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시리즈 강의를 마쳤고, 현재는 '내 사랑 슈베르트', '심포니 네비게이터' 강의를 진행중에 있다. 김문경은 오는 4월 10일 부산시립교향악단 웰빙콘서트 해설 및 진행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날 예정이다.

브라질 | -보사노바(Bossa Nova)



황 윤 기 _ 음악 칼럼니스트, 국악방송 '황윤기의 세계음악여행' DJ

삼바(Samba)의 나라 브라질은 '음악의 용광로'로 불리면서 다양한 모습의 음악들이 발전해 왔다. 그 중에서도 브라질 음악인들 특유의 '창조적인 수용력'이 가장 잘 발휘된 음악이 바로 보사노바(Bossa Nova)일 것이다. 또한 재즈와 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접목되면서 가장 친근한 브라질 음악 중의 하나로 보편화되어 있는 음악이기도 하다.

브라질 음악의 대명사인 삼바는 빈민촌에 거주하던 아프리카 흑인들에 의해 탄생해 카니발의 꽃이 된 음악이다. 그러나 삼바는 브라질 문화의 중산층에게까지 수용되지 못했다. 이어 삼바 리듬을 완화시키고 노래를 덧붙여 '삼바 칸쌍(Samba Canção)-노래하는 삼바'라는 형태가 생겨났다. 보사노바는 이 '삼바 칸쌍'에 보다 새로운 감각이 더해진 음악이라 할 수 있다. 보사노바는 삼바가 가지지 못했던 선율적인 우아함과 시(詩)적인 노랫말까지 겸비하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지식층까지 흡수했던 음악이었다.

이처럼 보사노바가 폭넓게 어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그 리듬의 미묘한 감각에 있다. 삼바 리듬을 바탕으로 독특한 악센트의 싱커페이션(당김음)이 가미되어 만들어진 보사노바 리듬은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던 쿨 재즈의 영향으로 우아하고 세련된 면모까지 더해 삼바와는 전혀 다른 감각을 선보였다. 히우 지 자네이루(Rio de Janeiro) 빈민층의 축제음악이었던 삼바와 달리, 보사노바는 조용하고 세련된 음악이며, 노래뿐만 아니라 악기에 있어서도 기타와 피아노 등이 주를 이루는 확실히 새로운 음악이었다.

이 새로운 감각의 리듬을 만들어 낸 사람은 '보사노바의 신(神)'으로 불리는 '조앙 지우베르투(João Gilberto)'라는 인물이다. 재즈 역사상 가장 높은 판매고를 올린 '스탄 게츠'의 앨범 'Getz/Gilberto'에서 보사노바 특유의 리듬을 만들어 내는 기타연주와 나긋한 보컬을 들려주었던 주인공이 바로 그다.

한편, 삼바가 타악기를 중심으로 하는 춤곡이라면, 보사노바는 기타가 중심을 이루는 악기이다. 단순하면서도 미묘한 화음으로 가득 차 있는 보사노바의 매력은 기타에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보사노바 리듬이 가진 독특한 악센트와 특유의 탄력은 기타로 표현되기 때문에 더욱 우아하고 세련된 면모를 지닐 수 있었다. 보사노바 가수가 중얼거리며 노래하듯 조용한 발걸음으로 절묘한 타이밍을 잡아가면서 기민하게 움직이는 기타는 보사노바의 가장 큰 매력임에 분명하다. 이렇듯 대중음악의 가장 대표적인 악기인 기타가 중심이 되는 음악이기에 보사노바는 더욱 친근한 느낌으로 다른 장르의 음악 속에 파고 들 수 있었다. 또한 보사노바 리듬의 가장 큰 특징은 독특한 악센트의 싱커페이션으로 인해 특유의 탄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경향'이라는 의미를 지닌 보사노바는 1958년부터 1964년 브라질 군부독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황금기를 누렸고, 음악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인 유행으로 확산되었다. 모던하고 쿨한 모든 것에 보사노바라는 명칭이 붙여질 정도였다. 하지만 보사노바는 군부독재가 시작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다. 노랫말이나 분위기가 현실생활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보사노바는 그 시대적인 가치관과 공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부정권의 혹독하고 암울한 상황에서 자라난 세대는 소위 MPB라고 불리는 브라질 대중음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된다.

MPB는 'Musica Populeira Brasileira' (브라질의 대중음악)의 약자로 세계 각국의 대중음악들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일 정도로 브라질만의 색깔을 담고 발전해 왔다. 따라서 원래의 뜻 이상으로 세계 음악 애호가들에게 각별한 의미를 전해 준다. 보사노바의 황금기는 이미 오랜 시간 속으로 묻혀갔지만, MPB로 불리는 브라질만의 특별한 대중음악 속 곳곳에 그 흔적들을 남기고 있다. 또한 재즈와 팝, 또 우리 가요 속에서도 끊임없이 등장하며 그야말로 '유통기한 무한대의 음악'으로 사랑받고 있다.

공지와 사유도출의 실내악제전

- 2009 제 5회 부산국제음악제 -

안 일 웅 _ 작곡가, 음악평론가



‘부자되세요’란 말의 앞뒤를 반추해 볼 겨를도 없이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올해도 부산국제음악제는 선사되었다.

지난 2월 13일 ~ 2월 22일 사이에 모두 18명의 연주자가 7회에 걸쳐 엮어낸 축제였다. 특히 이 음악제가 거대한 국가조직체가 아닌 부산아트메니지먼트라는 기획사에 의해 전개되어지고 있어 비상한 관심사가 된다.

순수전통음악의 붕괴조짐, 인문학의 몰락현상이라는 지구촌 문화환경을 염두한 터에서 이 음악잔치는 깊은 사유를 유추해냈고 또 작은 공지 같은 것을 갖게도 했다. 우선 갯마을 부산문화의 자부심이

이 제전 깊숙한 곳에 잠재된 점이다.

오프닝 갈라콘서트(2월 1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부산 출신의 국제적 피아니스트 박종화를 비롯 부산시립 교향악단 바이올리니스트 김동욱(악장), 첼리스트 양육진(수석) 등이 출연, 부산 음악문화계와의 연계성이라는 한 단면이 이 축제를 통해 부상되었다.

이날 연주는 긴장과 이완이라는 음악연주의 본연성이 발휘된 열연이었다. 그들 연주자들은 늘 임종과 마주하는 호스피스의 진실된 눈길 같은 것을 느끼게 했다.(이 리뷰는 연주현장 중계성 기술은 배제함)

또 음악제의 두번째 무대인 탁영아 피아노 독주회(2월 15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는 부산 출신 유망주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려는 기획의도를 쉽게 느낄 수 있게 했다. 그녀의 연주는 음악작품의 대비성, 즉 모든 음악이 지닌 야누스성 표출을 자신의 확신과 철학바탕위에서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의지세계를 넘어 체질화된 고무적 양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부산공지와 함께 이 음악제는 다른 한 쪽의 무엇인가를 ‘생각’ 하게도 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의식 변화와 음악행위를 원초적 혹은 본연적 진실추적 사유세계로 이끌어간 점이다.

이른바 현대인이라는 우리 의식변화는 분명, 음악세계까지도 무게 있게 다가와 있다. 특히 음악 수용형대의 탈바꿈은 경이적 경지에 이른다.

“.....저 연주를 듣고 있는 나는 ‘감동’ 하고 있는가?”

홍시처럼 농익은 태양을 부단히 응시하는 현대의 생태를 감안할 때 당위적 현상으로 간주하게 된다. 음악이 인간 삶의 질 향상에 끼치는 근본을 따지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부산국제음악제 어깨위에 얹혀질 만한 사안일 수 있다.

돈 봉투가 뿌려진 선거유세장에 청중이 없는 것은 감동이 없기 때문이며, 스스로 티켓을 사들고 연주장을 찾는 것은 거기에 감동의 요소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감동할 수 있는 음악무대, 부산국제음악제를 비롯한 오늘의 모든 연주무대 위에 내려진 명제다.

오늘의 음악행위 고민은 여기로부터 시작된다. 부산국제음악제의 시름을 가중하는 숙제일 수 있다. 난감한 문제임이 분명하다.(대머리인 사람은 어디까지가 얼굴일까?)

텍스트가 힘을 잃을 때 생기는 혼란

극단 이마주 & 24601의 <라디오, 잠시 길을 잃다>

김 문 홍 _ 연극평론가



텍스트, 잠시 힘을 잃다

극단 이마주와 24601의 공동 제작인 뮤직 모노드라마 '라디오, 잠시 길을 잃다' (박민지, 김세한 작, 김세한 연출, 1월 30일~3월 15일, 공간소극장)는 독특한 포맷의 연극이다. 배우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역할을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극중 인물인 라디오 DJ 한 사람을 연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배우에게도 연기하는데 큰 부담이 없을 뿐더러, 관객 역시 눈과 귀를 여러 채널로 활용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관극할 수 있다.

지난 해 가을 용천지랄 소극장에서 공연할 때와는 달리 이번 연극은 두 가지 버전으로 공연되고 있다. 여자 연기자인 이정비와 남자 연기자인 김준영의 버전이 바로 그것이다. 남자 연기자인 김준영의 버전은 지난 해 그대로이지만, 전반부에 공연되는 이정비의 버전은 내용과 형식에 있어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극중 인물인 라디오 DJ가 이끌어 간다는 큰 틀은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여자 연기자인 이정비가 라디오 DJ 하소연 역할을 담당한 전반부의 새로운 버전은 공연 텍스트인 희곡 자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극중 인물인 DJ 하소연이 청취자의 사연을 소개하는데 그 사연이 무척 힘이 없어 보인다. 청취자의 사연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의 정치사회적 파장으로서의 시대적 반영이거나, 아니면 이 궁핍한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아픔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공연에서 소개되는 사연들은 이도저도 아닌 그저 술자리나 식탁에서 보통 있을 법한 농담 수준의 개그들로 관객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점은 극중 인물 하소연이 라디오 진행을 그만두게 되는 사연이 필연적 모티브를 잃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배우, 텍스트 속에서 잠시 길을 잃다

연기자 이정비는 무대적 감각과 문학적 감성이 뛰어난 배우인데 이번 공연에서는 텍스트 속에서 잠시 길을 잃고 있다. 메인 텍스트인 희곡의 열개가 엉성하고 힘이 없다 보니 조명을 비롯한 무대 위의 모든 서브 텍스트마저도 무게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배우인 이정비가 능수능란한 연기적 힘으로 이러한 텍스트의 부족한 힘을 극복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극중 인물인 하소연이 외국에 가 있는 자신의 아이를 사랑으로 끌어안기 위해 라디오 진행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그러한 결행을 하기까지의 모성적 힘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친정어머니와의 몇 마디 전화상의 대화나 술에 취해 훌쩍이는 연기만으로는 모성으로서의 사랑과 아픔이 관객의 심상에 가 닿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장면과 상황에 따라 대사의 톤을 유연하게 구사할 줄 아는 화법의 훈련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완벽한 텍스트로서의 문학적 힘, 시대와 사회의 환부를 꿰뚫을 수 있는 연출의 통찰력, 그리고 텍스트를 해석하여 소화할 수 있는 배우의 빛나는 감수성이 절묘한 앙상블을 이룰 때 좋은 공연을 기약할 수 있다는 믿음이 후반기 공연인 배우 김준영의 버전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란다.

시청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미디어 문화센터**

시청자 미디어 센터



시청자를 위한 다양한 미디어 교육에서부터 전문제작 까지 미디어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미디어 문화센터인 시청자미디어센터. 지난 2004년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이곳은 '시청자 주권시대'를 열기 위한 시청자들의 열린 공간이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무엇보다 시청자의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시설입니다. ‘퍼블릭 액세스’는 일반 대중들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위해 매스미디어에 지면이나 시간을 요구하여 이용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방송기술도 모르고 장비제작에도 익숙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에게 다양한 미디어교육과 제작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설면에서 보자면 소규모 방송국과 다를 바 없다.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에는 편집실과 녹음실, 스튜디오, 부조정실, 자막방송제작실, DVD컨버팅실, 기자재대여실 등 제작시설과 디지털교육실, 세미나실, 강의실 등 교육시설, 공개녹화 프로그램 제작과 시

청자 제작 프로그램 상영이 가능한 공개홀과 영상실, 그리고 시민들이 방송장비를 직접 조작하고 체험할 수 있는 뉴미디어체험관이 들어서 있다. 이밖에 방송제작에 필요한 촬영, 녹음, 조명, 편집장비 등 700여대가 넘는 제작장비를 갖추고 시민들에게 대여해주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는 연간 100여차례가 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주부, 직장인, 대학생, 노인, 장애인 등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미디어 상설교육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획단계에서부터 촬영, 편집, 녹음 등 전문 기술교육까지 모든 과정을 배울 수 있다. 올해부터는 청소년, 가족, 다문화가족 등 대상을 세대별, 계층별로 세분화시켜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시청자의 ‘퍼블릭 액세스’를 실현하는 시민제작단은 현재 120명의 시민이 활동하고 있다. 시민제작단은 다양한 주제와 이슈로 각 방송사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우리사회에 적극적인 발언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영상제작단, 주부영상제작단이 추가로 꾸려지면서 기존 영상제작단, 라디오제작단, 스튜디오제작단과 함께 5개 시민제작단이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노인과 청소년제작단을 새롭게 꾸려 세대별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줄 계획이다.

소외계층을 위한 소통과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일 역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역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 장애인, 비정규노동자, 여성,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동체 미디어교육에서 부터 장애인영상제작단 운영,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및 화면해설방송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열리고 있는 부산장애인영화제는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한 독립영화와 시민영상제작물을 상영하면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있다.

이밖에도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하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자원봉사자 도슨트의 안내로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는 '도슨트 견학 프로그램'과 영상제작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즐거운 미디어체험프로그램 '꿈스꿈스'는 인기만점

프로그램. 특히 '꿈꾸는 스튜디오 꿈찾는 스튜디오'를 뜻하는 '꿈스꿈스'는 참가자가 직접 드라마 주인공이나 뉴스앵커, 기자가 되어 방송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가족단위, 유치원, 학교, 복지관 등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또, 7~8월경에는 시민들의 미디어활동을 소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다채로운 문화의 장 '퍼블릭 액세스 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리는 이 모든 교육강좌와 제작시설, 장비이용은 무료이다. 교육강좌를 수강하거나 영상제작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대여받기 위해서는 우선 시청자미디어센터 정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정회원은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매주 실시하는 정회원 교육을 한차례 이수해야 하는데, 정회원 교육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현재 정회원 수는 1,700여명, 지난해까지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이용한 누적 이용객 수도 17만명이 넘는다.

- 개관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 문의/시청자미디어센터(749-9500, www.comc.or.kr)



토브 여성합창단 제 1회 정기연주회

3월 2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각 교회 찬양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로 구성된 토브여성합창단 제 1회 정기연주회.

2003년 1월에 창단된 토브남성합창단의 후원에 힘입어 2007년 4월에 창

단된 토브여성합창단은 그해 6월 해운대문화회관 연주를 시작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토브(Tov)는 좋은, 선함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어이다.

이번 무대는 '감사와 찬양의 시' 인 '시편' 만을 모아 연주한다.

프로그램

Gloria Deo, 복있는 사람들(1편), 시편 150편, 시편 84, 시편 33, 시편 40, 시편 8, 시편 23, 시편 20

· 지휘/이일경
· 특별출연/바리톤 권영기, 플루티스트 오영인, 토브남성합창단

- 관람료 초대
- 문의 이일경(010-4880-4918)



Ensemble Di Mare 제 2회 정기연주회

3월 5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꾸준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주자 13명이 포근하고 잔잔한 바다의 화음과 같은 실내악의 매력을 전하기 위해 결성한 '앙상블 디 마레' 제 2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비발디/협주곡 '알라 루스티카' 사장조
드볼작/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22 II, Tempo di Valse
홀스트/성 파울루스 모음곡
그리그/Chamber concerto for piano and string orchestra(편곡)

- 리더/이은옥(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 협연/장형준(서울대학교 교수)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 문의 아트뱅크코레아(442-1941)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3월 6일-3월 8일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30
일요일 오후 2:00, 6:30 대극장



2004년 초연부터 매 공연마다 1일 티켓 판매량 신기록 수립, 전회 기립 박수 등 한국 뮤지컬의 새로운 역사를 쓴 '지킬 앤 하이드' 부산무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작품과 탄탄한 배우들로 재무장한 2009년 '지킬 앤 하이드'는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두 개의 본성 선과 악을 섬세하게 표현한 드라마에 지킬, 엠마, 루시의 로맨스가 더해져 '브로드웨이 뮤지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릴러'라는 극찬을 받고 있다. '지킬 앤 하이드'는 2004년 초연당시 완성도 높은 작품성과 조승우의 탄탄한 연기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단숨에 뮤지컬계의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 했다.

- 프로듀서/신춘수
- 연출, 안무/데이비드 스완

출연 류정한, 홍광호, 김선영, 김수정, 임혜영, 김봉환, 류창우 외 뮤지컬배우 20인

- 관람료 R석 120,000원 · S석 100,000원 · A석 70,000원 · B석 4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첼리스트 송영훈 & 피아니스트 안드리우스 질레비스 콘서트

3월 12일 목요일 오후 8:00 대극장

완벽한 기교와 따뜻한 감성을 겸비한 한국 최정상 첼리스트 송영훈과 20세기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 기돈 크레머가 선택한 피아니스트 안드리우스 질레비스가 들려주는 첫 전국 투어 리사이틀.



협연과 솔리스트로서 연주활동 외에도 'KBS 1FM 가정음악'을 진행하는 등 클래식 음악의 전령사 역할을 해내며 한국 클래식 음악 열풍 가운데 서 있는 송영훈은 한국 출신의 세계적인 첼리스트로서 높은 인기를 누리며 수많은 초청 연주를 갖고 있다. 2002년 헬싱키에서 열린 국제 파울로 첼로 콩쿠르에서 입상한 송영훈은 최근 피아노 쉐넬 MIK양상들의 멤버로 김상진(비올라), 김수빈(바이올린), 김정원(피아노)와 함께 활동하고 있다.

낭만과 러시아 색채를 느낄 수 있는 쇼스타코비치, 라흐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 등 화려하고도 강한 색채감과 낭만이 돋보이는 러시아 작품들로 꾸며지는 이번 무대는 공연 한 시간 전 송영훈의 진행으로 관객들에게 곡에 대해 설명하는 Special preconcert talk _ appetizer가 함께 열린다.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사단조 작품 19
라흐마니노프/보칼리제 제 14번 작품 34 가단조
쇼스타코비치/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라단조 작품 40
쇼스타코비치/로망스(from 'the gadfly') 작품 97a

- 관람료 VIP석 55,000원 · R석 44,000원 · S석 33,000원 · A석 22,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더 스톱프(02-2658-3546)

2009 캐논볼 재즈 콘서트- Saxophonist 이병주

3월 8일 일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예술대학 외래교수, 부산재즈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색소포니스트 이병주 퀸텟 재즈 콘서트.

2003 pamp real in busan 음반을 발매한 이병주는 그동안 부산재즈페스티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오프닝연주, HONDA MOTORS BUSAN OPEN 축하공연, 일본 J-POP X10 LIVE 페스티벌, MBC목요음악회 국악과 재즈의 만남,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축제 초청공연(2005, 2006년)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활동해 왔다.

프로그램

Au Privave, There Will Never Be Another You, 사랑이 지나가면, Love Your Spell Is Everywhere, Lou ann, Danny Boy, 벚꽃지다, 어머니 우시네(작사, 작곡/말로) 등 수곡
· 연주/이병주 퀸텟(색소폰 이병주, 트럼펫 김일황, 피아노 최수정, 베이스 최춘광, 드럼 곽영일)
· 특별출연/Malo

-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 A석 15,000원
- 문의 E-Zen엔터테인먼트(904-8881)

제 8회 베이스 손욱 독창회

3월 9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아지무스오페라단의 부산시 전문 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축하하며 아지무스오페라단 손욱 단장이 가지는 여덟 번째 독창회.

이번 무대에서는 독일가곡과 성가곡, 한국애창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등을 부인인 이영숙의 반주로 노래한다.

프로그램

한국가곡/옛날은 가고 없어도, 황혼의 노래, 물안개
독일가곡/슈베르트의 연가곡집 '겨울나그네' 중 Gefrorne Tränen(얼어붙은 눈물), Die Post(우편마차), Mut!(용기)
아리아/'Nabuco' 중 Vieni, o Levita(레위인이여, 들어오라)
'Don Carlo' 중 Ella gia im ma m'amo(그녀는 날 사랑하지 않아)
· 우정출연/크로체중창단, 첼리스트 최영준
· 피아노/이영숙

- 관람료 초대
- 문의 손욱(011-9250-4649)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09 부산연주인시리즈 1 2009 신춘음악회

3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싱그러운 새봄의 기운을 담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신춘음악회.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지휘하고 2009년 부산연주인시리즈 연주자로 선정된 부산출신의 플루티스트 정재은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봄날을 연상하는 밝고 가벼운 슈트라우스의 '봄의 소리 왈츠', 낭만파 시인 베히거의 '봄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슈만의 교향곡 '봄' 등 봄을 위한 아름다운 관현악곡을 선곡,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음악으로 봄소식을 전한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미술피리' 서곡 작품 620
라이네케/플루트 협주곡 라장조 작품 283
슈트라우스/왈츠 '봄의 소리' 작품 410
슈만/교향곡 제1번 내림나장조 '봄' 작품 38
· 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프
· 협연/정재은(플루티스트)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UKO(United Korean Orchestra) 정기연주회 제12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과 나눔의 음악회'

3월 16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가 환자들을 돕기 위해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마산, 포항시향 등 부산 경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연주자 100여명이 뜻을 모아 결성한 United Korean Orchestra(U.K.O) 정기연주회.

2006년 11월 9일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린 창단연주회를 가진 U.K.O는 2007년 9월 부산과 LA 자매결연 4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주회, 2008년 1월의 제주 초청연주회, 김해 초청연주회, 정기연주회 등 현재까지 총 11회의 연주회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U.K.O는 현재까지 약 40명의 난치병어린이들에게 약 1억 6천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프로그램

토마/미농 서곡
임금수/강 건너 봄이 오듯
김동진/목련화
카푸아/오 나의 태양이여
덴차/푸니쿨리 푸니쿨라 등 수곡
· 지휘/이동신
· 테너/김성진(인제대학교 교수), 이병삼(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박상혁(울산대학교 교수)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의 정희자(011-589-3111)



김소형 피아노 독주회

3월 11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미국 The Boston Conservatory 대학원, 미국 The University of Hartford 최고 전문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소형 교수의 피아노 독주회.

이번 무대는 초기 낭만파 작곡가인 슈베르트의 최후의 소나타 즉흥곡과 후기 낭만파 작곡가인 브람스 소나타 등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슈베르트/즉흥곡 제3번 내림나장조 D.935/작품 142
그라나도스/알레그로 데 콘체르트
브람스/소나타 제3번 바단조 작품 5

- 관람료 초대
- 문의 김소형(890-1298, 011-578-3700)

모던 아트 잭스텝과 함께하는 한미영의 작품

3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베를린 예술대학교에서 디플롬, 독일의 작곡과 박사 과정인 마이스터쉴러-엑사멘 과정을 졸업하고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작곡가 한미영의 작곡 발표회.

한미영은 독일 베를린 성(城) 프리드리히스펠데(Schloß Friedrichsfelde Berlin), 1996 서울-베를린 페스티벌, 1999 베를린 시(市) 문화부(Senatsverwaltung für Wissenschaft, Forschung und Kultur), 통영 국제 음악제 등에서 위촉받아 다양한 작품을 발표해왔다. 특히 한미영은 2004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Urban+aboriginal XVI'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베를린과 라이프치히에서 작품이 연주되었고 공영 중부 독일 라디오 방송-라이프치히(MitteldeutschlandRadio-mdr Leipzig)에서 작품이 방송되기도 했다. 모던 아트 잭스텝은 독일 베를린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

Trio for Clarinet, Violoncello and Pianoforte(2005)
Quintet for Flute, Clarinet, Violin, Violoncello, Pianoforte(2007/08, 초연), Streichtrio für Violine, Viola, Violoncello(2008, 초연) 등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부산음악협회(634-1295, 019-575-2836)

3월 한낮의 유U; 콘서트 '모닝 카페'

3월 17일 화요일 오전 11:00 대극장

뉴프라임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부산대학교 박성완 교수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리벤트리트 콩쿠르에서 우승, 국제 무대에서 명성을 쌓은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한동일과 동의대학교 백재진 교수의 바이올린 연주, 아미티에성악연구회 성악가 6인들의 하모니를 들려준다. 한동일은 2005년 2월 영구 귀국해 울산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프로그램

오펜바흐/아름다운 엘렌 서곡
마로니에/각테일 사랑
몬티 /차르다스
비에니아프스키/화려한 폴로네이즈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21번 다장조 K.467 등 수곡
· 지휘/박성완
· 연주/뉴프라임오케스트라
· 협연/피아니스트 한동일,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아미티에성악연구회(테너 정종철, 엄현섭, 바리톤 하병욱, 이철훈, 소프라노 김경희, 박은미)

- 관람료 전석 15,000원(국제신문 구독자 및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
- 문의 국제신문 문화사업국(500-5222)



한동일



백재진

양경아 바이올린 독주회- Sonata I

3월 18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미국 메릴랜드 음대를 졸업하고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 부산연주회.

NIMF International Competition 2위, Artist International Competition 입상, Manhattan School of Music chamber music competition 입상한 바 있는 양경아는 섬세하면서도 민첩한 테크닉으로 주목받고 있다. 양경아는 스위스 UBS Verbier Festival Orchestra 단원으로 James Levine, Charles Dutoit 와 아시아, 유럽 투어를 가진 것을 비롯해 UN 주최 세계 평화를 위한 콘서트 초청 연주, 예술의전당 유망신예 선정 초청 독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서울아카데미심포니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양경아는 현재 서울 클래식 플레이어즈(SCP)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드볼작/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사장조 작품 100
그리그/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다단조 작품 45
존 코릴리아노/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 피아노/김현정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남부산농협 청솔합창단 정기연주회 및 심장병어린이돕기 자선음악회

3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1987년 창단,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남부산농협 청솔합창단은 2002년 세계합창올림픽과 2004년 독일브레멘 합창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귀여운 꼬마, 아이스크림 사랑, 눈, 동물농장, 러시아포크송 오솔길에서, 꽃구름 속에, 예맥아라리, 신몽금포타령 등 수곡
· 단장/박순희 · 지휘/강학윤 · 반주/손혜진
· 특별출연/멜로스 성악 앙상블, 잼 색소폰 앙상블

■ 관람료 무료

■ 문의 남부산농협청솔합창단(610-3560)

사단법인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제 34회 정기연주회 'Jupiter'

3월 14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시 지정 전문예술법인단체인 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는 해운대문화회관 개관 축하연주회, 문화소외지역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통해 청중들과 만났다.

프로그램

요한 스트라우스/봄의 소리 왈츠 작품 410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모차르트/교향곡 41번 다장조 K.551 '쥬피터' 등 수곡
· 지휘/김용문 · 협연/윤혜정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김소연(010-8918-1535)

부산뮤즈플룻앙상블 제 5회 정기연주회

3월 15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2005년 플루티스트 강선아의 제자들로 창단된 부산뮤즈플룻 앙상블은 플룻만으로 구성된 앙상블 단체로 플룻앙상블의 지평을 넓혀왔다.

프로그램

드볼작/현을 위한 세레나데 마장조 작품 22
차이코프스키/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Danse des Mirlitons'
롯시니/윌리엄 텔 서곡 피날레 등 수곡

■ 관람료 초대

■ 문의 백인아(010-4335-833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47회 정기연주회

3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봄을 알리는 신춘음악회에 이어 협주곡과 교향곡사에 길이 남을 명곡들을 들려주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47회 정기연주회.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데니스 샤포발로프(Denis Shapovalov)가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는다.

연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예리한 테크닉, 놀라운 표현력, 고고한 해석으로 주목받고 있는 데니스 샤포발로프는 1998년 제 11회 국제 차이코프스키콩쿠르 1등 및 만장일치 골드 메달을 수상하고 로스트로포비치로부터 '눈부신 텔런트' 라는 격찬을 받았다.

샤포발로프가 들려주는 엘가 '첼로 협주곡 마단조 작품 85'은 1919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엘가 특유의 구상을 간결하게 다루고 있다. 1부 엘가 첼로협주곡에 이어 2부 무대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함께 장대한 스케일의 웅장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 10번 마단조 작품 93'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엘가/첼로 협주곡 마단조 작품 85
쇼스타코비치/교향곡 제10번 마단조 작품 93
· 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프
· 협연/데니스 샤포발로프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솔오페라단이 선사하는 유쾌한 음악 선물 Fun Fun한 콘서트

3월 21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연주자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클래식 연주의 틀을 깬 새로운 형식의 클래식 무대 Fun Fun한 콘서트.

청중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솔오페라단의 유쾌한 음악 선물 Fun Fun한 콘서트에서는 한국 최고의 성악가들이 가요에서부터 민요, 세계가곡, 오페라 아리아까지 고품격 감동과 뉴버전 코믹 클래식으로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프로그램

로시니/나는 이 마을의 제일가는 이발사
푸치니/공주는잠못이루고
베르디/브린디지(축배의노래) 등 수곡
· 연출/박동민
· 출연/소프라노 김경희, 테너 이철성, 테너 김지호, 테너 김화정, 테너 양승엽, 테너 이한성, 바리톤 조현수, 바리톤 공정배, 바리톤 박대용, 바리톤 고영호, 베이스 유형광, 베이스 김태경
· 음악코치/이소영

■ 관람료 VIP 80,000원 · R석 6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 B석 20,000원 · C석 10,000원

■ 문의 솔오페라단(1544-9373)



김은진 비올라 리사이틀 - Inspiration

3월 16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창원시립교향악단 수석, 동의대학교 겸임교수, 부산 시포니에타 수석, 비르 투오조 Quartett 멤버, 울산 USP 챔버 오케스트라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올리스트 김은진 비올라 리사이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칼스루에 국립음악대학, 슈투트가르트 국립음악대학에서 음악수업을 한 비올리스트 김은진은 단아함 속의 열정을 가진 비올리스트로 평가 받고 있다.

프로그램

막스 브루흐/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로망스 작품 85
레베카 클라크/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에른스트 블로흐/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히브리 조곡
요하네스 브람스/비올라 소나타 제1번 작품 120
· 피아노/정수연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부산음악협회 제 9회 신춘음악회

3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지역 예술대학 대학원을 졸업하는 유망 신예들이 들려주는 부산음악협회 제 9회 신춘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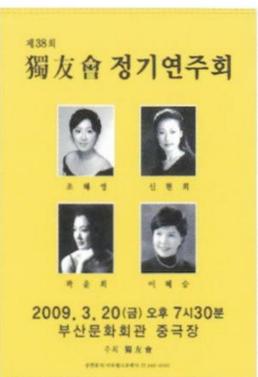
출연

최혜영(피아노, 신라대학교), 전샘(소프라노, 고신대학교)
황정원(가야금, 부산대학교), 김민지(소프라노, 부산대학교)
김미진(피아노, 동아대학교), 윤미희(마림바, 동아대학교)
이재은(바이올린, 동의대학교), 강현진(플루트, 동의대학교)

- 관람료 초대
- 문의 부산음악협회(634-1295)

제 38회 독우회 피아노 연주회

3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독일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독우회 회원들이 갖는 38번째 정기연주회.

독일 트로싱겐 국립 음악대학을 졸업한 조혜영, 독일 악헨 국립음대, 네덜란드 마스트리트 음대를 졸업한 신현희, 독일 악헨 국립음대, 쾰른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곽윤희, 악헨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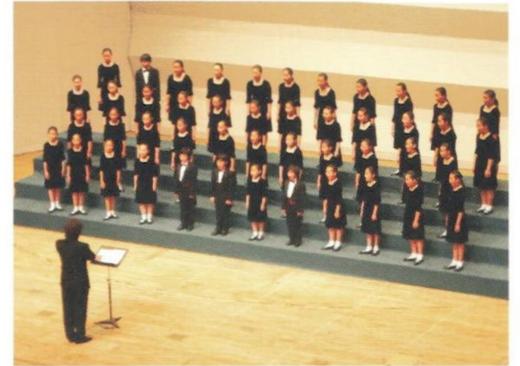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25회 정기연주회 꽃들이 노래하는 봄

3월 21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싱그러움과 활력을 무대 위로 옮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25회 정기연주회 '꽃들이 노래하는 봄'.

맑고 깨끗한 소년소녀합창단의 음색에 어울리는 봄을 대표하는 꽃에 관한 노래, 생동감 넘치는 왈츠, 소고춤 등으로 2009년 첫 무대를 연다. 봄의 상징인 꽃을 주제로 한 무대, 서양의 대표적 춤곡 왈츠와 폴카, 한국적인 소고춤으로 봄소식을 전한다.



프로그램

꽃의 노래/진달래꽃(박지훈 곡), 산유화(이현철 곡), 목련화(김동진 곡)
Once upon a dream(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중에서)
Ave Maria(드라마 '천국의 계단' ost 중에서)
왈츠와 함께/폴카, 빈 숲속의 이야기(요한 슈트라우스 곡)
아리랑 모음곡/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강원도아리랑, 경기도아리랑, 홀로아리랑 등 수곡
· 지휘/전상철(수석지휘자)
· 반주/이영옥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재(합창)
· 특별출연/소프라노 장은영, 미루샘여성합창단(지휘/고봉수), 브이시발레단

-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6131)

천재 바이올리스트 오주영과 함께하는 독일 라이프치히 챔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3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1996년 뉴욕의 영 콘서트 아티스트 국제 음악콩쿠르에서 세계 34개국 300여명의 참가자 중 14세의 최연소나이로 우승하여 세계 무대에서 각광받은 천재 바이올리스트 오주영과 함께하는 독일 라이프치히 챔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2001년 미하엘 쾰러가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로 창단한 라이프치히 챔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다이나믹한 연주기법과 혁신적인 편성으로 바로크에서 현대음악, 합창, 심포니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자랑한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제 2번 작품 19 내림 나장조
크라이슬러/사랑의 슬픔, 사랑의 기쁨, 서주와 알레그로
사라사테/찌고이네르바이젠

- 관람료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 B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부산문화(633-8990)



오주영



박현정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혜승이 연주한다.

프로그램

쇼팽/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대 폴로네이즈 작품 22
드뷔시/판화-탐, 그라나다의 황혼, 비 내리는 정원
히나스테라/피아노 소나타 제 1번 작품 22 등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부산원음합창단 제 14회 정기연주회

3월 22일 일요일 오후 3:00 중극장

부산세계합창올림픽 은메달, 독일 브레멘 세계합창올림픽 종교음악 은메달, 제 4회 중국 샤먼 세계합창올림픽 동메달을 수상한 바 있는 부산원음합창단의 제 14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성가/어둔 길 괴로운 길(성가 48장), 가없는 중생(성가 97장),
거룩하셔라 우리 대중사(성가 118장)
정세윤/까투리타령, 개구리
이수인/솔바람 속에서, 국화 옆에서 등 수곡
· 지휘/정세윤(동주대 겸임교수)
· 특별출연/김병섭 & 이대웅(하모니카), 울산원음어린이합창단,
원음중창단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원불교 부산교구(245-0717)

조상한 귀국 피아노독주회

3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예고와 경성대학교 예술학부 수료 후 독일로 유학, 데트몰트 국립 음대 Vordiplom 과정, 데트몰트 국립 음대 음악 교육학과정, 전문연주자 과정 수업을 마치고 귀국한 부산출신의 피아니스트 조상한 귀국 독주회.

조상한은 유학중 데트몰트에서 피아노 독주회 수차례 및 실내악 연주, 라이프치히 멘델스존 하우스 초청연주회, 빌레펠트 시 초청 피아노 독주회 등을 가졌다. 지난 해 부산피아노연주가 클럽 주최 피아니스트 페스티벌에 출연하며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

바하/이탈리안 협주곡 BWV.971
슈만/3개의 환상소곡집
프로코피에프/피아노 소나타 작품 28 등

- 관람료 초대
-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테너 김상곤 교수 3개도시 순회독창회

3월 26일 목요일 오후 8:00 대극장

호세 카레라스로 부터 유시 비올링과 같은 소리를 지녔다는 호평을 받으며 성악계에 등장, 폭 넓은 연주 활동을 펼쳐온 테너 김상곤 독창회.

이화여자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테너 김상곤은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이태리 로마 아트 아카데미, 이태리 베르디 국립음악원 수료 및 줄리아드 음대 오페라센터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수학했다.

김상곤은 유학시절 벨기에 베르비에 국제성악콩쿠르 1위, 이태리 마리오 델 모나코 국제 성악 콩쿠르 1위, 프랑스 툴루즈 국제 성악 콩쿠르 1위, 스페인 자코모 아라갈 국제 성악 콩쿠르 2위, 이태리 나폴리 국제 성악 콩쿠르 3위, 스페인 호세 카레라스 국제 성악 콩쿠르 3위, 스페인 빌바오 국제 성악 콩쿠르 3위, 이태리 베르디 국제성악 콩쿠르 3위로 입상했다.

프로그램

마이아베어/오페라 '아프리카의 여인' 중 '오! 낙원이여'
베르디/오페라 '일트로바토레' 중 '저 무서운 불길을 보라'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꽃노래'
푸치니/오페라 '토스카' 중 '오묘한 조화' 등 수곡
· 해설/탁계석 · 피아노/김지은

- 관람료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 문의 모티브 플래닝(02-543-7352)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45회 정기연주회 신춘음악회 '飛天' 동춘서커스 국악에 안기다

3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희망과 열정이 샘솟는 밝고 화사한 새봄을 우리 가락에 담아 전해주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45회 정기연주회.

화려한 기교로 봄을 열어주는 피리 협주곡, 역동적인 리듬과 타악의 강렬함을 아름다운 선율에 얹은 남산놀이마당의 흥겨운 타악의 선율, 국내 유일의 아트서커스 동춘서커스의 화려한 무대로 봄을 연다.

지난해 신춘음악회에서 난버벌 퍼포먼스 '점프'와 국악관현악의 만남을 시도, 큰 박수를 받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이번 무대에서는 80년 전통을 자랑하는 국내 유일의 아트서커스 동춘서커스와 국악의 만남을 시도한다. 1927년 목포에서 첫 무대를 올린 동춘서커스는 1960-70년대 단원이 250명이 넘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다.

프로그램

정동희(편곡)/국악으로 듣는 비발디의 사계 중 '봄'
이강덕/이종대의 피리로 듣는 화사한 봄의 소리 '메나리조 피리 협주곡'
이경섭/남산놀이마당과 힘찬 봄날에 펼치는 타악의 세계와 국악관현악 '打'
동춘서커스와 국악관현악이 펼치는 아트서커스 '동방의 신기'

- 지휘/박호성(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이종대(부산대학교 교수), 남산놀이마당, 동춘서커스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멜로소오케스트라 제 6회 정기연주회

3월 28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2002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5회의 정기연주회, 환우들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동의의료원, 부산대병원) 등으로 음악 사랑을 실천해온 부산멜로소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제 6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하이든/런던 심포니 제 7번
요한 스트라우스/예술가의 생애
가브리엘의 오보에, 베토벤 바이러스 등
· 지휘/윤상운(동의대학교 교수)

■ 관람료 초대

■ 문 의 단장(017-563-5067), 총무(010-5433-7527)

2009 제27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밴드래기 아기

3월 31일-4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수요일 오후 4:30, 7:30 중극장

한국 전통놀이 속에 녹아있는 신명의 놀이를 통하여 현대사회의 인간애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제작된 연극 '밴드래기 아기'는 여섯 마당으로 구성된 마당극이다. 때 묻지 않은 흥순을 통해 사람과 사람간의 간극을 줄여나가며, 조화와 통합으로서의 신명을 끌어낸다.

· 작/조인숙 · 연출/심문섭
· 출연/박지현, 정애경, 양효윤, 김현주, 강원재, 김정원, 김아람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부산연극제작소 동넵(751-0858)

2009 제27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 극단 에저포 그래도 달은 떠오른다

4월 3일-4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중극장

가슴 아픈 가족사를 무대로 옮긴 '그래도 달은 떠오른다'는 돈에 눈이 멀어 노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훔쳐 도망간 아들 한수와 노인과 가족들의 갈등을 그린 작품으로 월출리 섬을 지키는 노인의 울골은 마음으로 해답을 찾아간다.

· 작/곽노홍 · 연출/최재민
· 출연/이지훈, 손미나, 구유희, 신영재, 김현자, 김상호, 김지연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극단 에저포(852-9161)

2009 제27회 부산연극제 축하공연 극단 골목길 너무 놀라지 마라

3월 28일-29일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3월 27일 오후 7시 개막식) 중극장

부산 지역 창작극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연극인들이 펼치는 부산연극제 2009년 무대. 9개 경연팀이 참가하는 2009년 부산연극제는 경연 작품 외에도 축하공연, 역대 부산연극제 대상 수상작품 사진전시회, 세미나, 부산시 민연극제, 관객과의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다.

개막 축하공연 작품 '너무 놀라지 마라'는 2008년 한국 신연극 100주년을 맞아 선보인 화제작으로 상식과 예상을 뒤엎는 웃음을 자아낸다. 연극은 아버지의 자살로 시작되며, 아버지의 시체 썩는 냄새와 화장실 냄새가 진동하는 데도 시동생은 여전히 화장실에서 '악'을 쓰고 남편은 시나리오 작업, 아내는 여전히 일터로 나갈 뿐이다.

· 작, 연출/박근형

· 출연/장영남, 이규희, 김영필, 김동현, 김주완 외

■ 관람료 일반 30,000원 · 대학생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 문 의 공간소극장(611-7518)

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645-3759)



부산시립극단 제34회 정기공연 무엇이 될고하니

4월 2일-4일 목-토요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대극장

'불가불가'로 지난해 부산연극사의 새로운 획을 그은 부산시립극단이 2009년 '무엇이 될고하니'로 부산연극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1978년 초연당시 '집단창작극'의 형식으로 공연된 최초의 작품으로 화제를 모은 '무엇이 될고하니'는 권력의 힘에 의해 짓밟히는 달래와 꺾쇠의 비극적 사랑을 통하여 우리 민초들의 잡초와 같은 삶과 이들의 한을 달래준다는 이야기이다. 시골장터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각 설이, 약장수, 점쟁이, 광대 등이 출연하여 옛 향수와 익살맞은 입담으로 관객들에게 시종일관 웃음과 재미를 선사한다.

30년을 뛰어 넘어 부산시립극단의 특색을 살려 재창작되는 '무엇이 될고하니'는 부산이 낳은 세계적인 연출가 이윤택, 독창적 형식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연출가 채윤일, 동래야류의 예능보유자인 김경화 등 최고의 스텝이 뭉쳐 또 한번의 신화를 만든다.

· 원작 대본구성/김정옥(국제극예술협회 세계본부 명예회장,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연출/채윤일(부산시립극단 수석연출가)

· 부산시립극단 대본구성/이윤택(동국대학교수, 밀양연극촌 예술감독)

· 동래야류 연희지도/김경화(중요무형문화재 제 18호 동래야류 예능보유자), 이돈희(부산시립극단 단원)

· 악사/이선구 외 해미르예술단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문 의 부산시립극단(607-6136)



시민회관

김종국 2009 콘서트

3월 14일 토요일 오후 7:00

15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 관람료 R석 88,000원 · S석 77,000원
A석 66,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KNN(1588-8477)

뮤지컬 온에어 시즌2

3월 20일 금요일 오후 8:00

21일 토요일 오후 3:00, 7:00

22일 일요일 오후 2:00, 6:00 대극장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어나는 코믹한 에피소드와 가슴찡한 사연들이 라디오 PD와 DJ의 알콩달콩 연애담과 함께 펼쳐지는 창작뮤지컬.

- 작/박새봄 · 연출/최성신
- 출연/오종혁, 자두, 이민경, 오대환, 김진태 외

■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AN시티(1644-4484)

가족뮤지컬 알라딘과 요술램프

3월 21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22일 일요일 오후 2:00, 4:00

소극장



고전 '아라비안 나이트'를 원작으로, 알라딘과 요술램프 요정의 신기한 모험이야기가 춤과 노래, 환상적인 무대로 펼쳐지는 가족뮤지컬.

- 각색, 연출/이지영
- 출연/고도일, 한혁수, 류형민, 김혜진, 이선희, 정석원, 박정옥, 조윤수 외

■ 관람료 균일 12,000원(예매시 2,000원 할인)

■ 문의 플러스기획(1566-7275)

2009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오페라제작소 밤비니 히어로 베토벤

3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28일 토요일 오후 4:30, 7:30 소극장

위대한 작곡가 악성 베토벤의 삶과 음악세계를 그린 음악극으로, 베토벤의 주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연출/김성경
- 출연/양승엽, 장은영, 김나정, 오세민, 권미경, 박재현, 김정권, 권유진 외

■ 관람료 R석 30,000원 · 일반 20,000원

■ 문의 부산연극협회(645-3759,
오페라제작소 밤비니(703-0737)

2009 부산연극제 경연작 교사극단 한새별 호모 에로티쿠스

3월 30일 월요일 오후 7:30

31일 화요일 오후 4:30, 7:30 소극장

실버타운을 배경으로, 고령화사회에서 간과되고 있는 노인들의 욕망과 욕구를 그려낸 극단 한새별의 창작극.

- 작/우혜선
- 연출/김병철
- 출연/정경화, 주용욱, 박경미, 황용대, 이은주, 여수진 외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부산연극협회(645-3759,
교사극단 한새별(500-7460)

2009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하늘개인날 황혼의 블루스

4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3일 금요일 오후 4:30, 7:30 소극장

호구지책으로 공원에서 색소폰을 부는 주인공과 그 주변사람들을 통해 우리 사회 소외계층들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작품.

- 작/최송림 · 연출/김태호
- 출연/권철, 이정허, 이현욱, 권혁진, 김은경, 안지영, 허경진 외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극단 하늘개인날(646-0320)

금정문화회관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 4일 부산시향 10 첼리스트 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파트 단원으로 구성된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앙상블 초청무대.

- 연주/김근아, 김성덕, 김판수, 도수경, 박영주, 방준실, 서송은, 양욱진, 전수정, 전지윤

■ 11일 3 바리톤 초청 수요음악회



진해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이창룡과 울산가톨릭합창단 지휘자 조현수, 미루샘여성합창단 지휘

책사랑 53년 대형서점 지하1~5층 엘리베이터은행

전국최고 종합지도(지구본)센터 (과장광고 아님)

국산 지구본 최상품만 취급/외국산 지구본 최상품취급

- ▶ 국 산 : 소·중·대·초대형, 위성, 지세, 행정 다양함 20%할인
- ▶ 외국산 : 세계적 매출 독일 스텔라노바 소·중·대 초대형 공중부양, 뜨고, 돌고, 한·영지명 출시중 색상분변 선물용최고

지도의 모든것! 종류가 많아서 일부만 안내합니다.

- ▶ 전국, 시, 도별지도 전국교통관광지도, 국내, 외국관광책자
- ▶ 전국전자지도 PC로 지적, 지번, 도면 확대 축소 연결자유
- ▶ 경매, 부동산, 건설 설계, 시공, 통신, 유통, 택배,
- ▶ 금융기관, 업무용, 기타 각종업체 정부발행지도판매
- ▶ 지형도 당지도센터 취급의 1:3000지도를 연결코팅
- ▶ 부동산업계, 기타, 회사, 사용용도에 따라 소중, 대형코팅

대형지도, 지구본 매장 관람을 환영

새 소식!

문우당서점 지도센터에서

세계지도계 초유

한국발명특허획득

국기 있는 지도(특허품), 국기 없는 지도(2종)

- 대형 금박 고급 액자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일반형 금박 고급 액자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대형, 코팅 벽걸이용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일반형코팅벽걸이용 세계지도(학교, 가정)

★ 학생, 일반공용케이스 / 날장지도(값 5,000원)

since 1955

문우당

MUN WOO DANG BOOK STORE
www.munbook.co.kr

문우당서점

Tel: 241-5555(대표)
245-2714(공연문의)

자갈치시장 정문이 보이는 이지탑 앞
(미니몰 건너편)

각종 공연예매처

CGV10% 적립 통도원타지아 경주월드
할인 판매처

자 고봉수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세 명의 테너와 함께하는 무대.

· 피아노/이소진, 김미연 · 해설/김윤선

■ 18일 공소현 & 김미연 피아노 듀오 콘서트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독일 로스토크 국립음대를 졸업한 공소현과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김미연이 함께하는 피아노 듀오무대.

■ 프로그램

피아졸라/리베르탱고
무소르그스키/신 스페인무곡 작품 65
라흐마니노프/모음곡 제 2번 작품 17 등

■ 25일 불자 소프라노 박수진 독창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마산시립합창단 단원을 역임한 소프라노 박수진 독창회.

■ 프로그램

비발디/오페라 '바자제트' 중 '나는 열시 받는 아내라오'

윤이상/고풍의상

스트라우스/오페레타 '박쥐' 중 '여보세요 후작님' 등 수곡

· 피아노/이승윤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41)

부산신포니에타 제 64회 정기연주회

3월 5일 목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최원정

노경원

부산의 대표적인 연주단체인 부산신포니에타가 마련하는 64번째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는 부산대학교 교수 박성완이 지휘하

고 강남심포니 수석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최원정과 인제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노경원이 협연한다.

■ 프로그램

하순봉/Ditto graphy
라벨/치간느
슈베르트/심포니 제 5번 등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김영희(010-8519-0448)

노모스 플루트앙상블 제 5회 정기연주회

3월 8일 일요일 오후 5:00 소공연장

지난 2005년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박찬엽을 주축으로 결성된 노모스 플루트앙상블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로시니/월리엄텔 서곡
한국민요/새야 새야 파랑새야 등 수곡

■ 관람료 초대

■ 문의 김인호(017-554-7777)

소프라노 김나정, 바리톤 최대우 Melody of Spring

3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김나정

최대우

부산대학교 동문이자 현재 울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는 소프라노 김나정과 바리톤 최대우가 함께하는 듀오무대.

■ 프로그램

리스트/아가야, 내가 왕이라면
도니제티/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왜 저리 좋아할까, 오 깊은 사랑'
남도민요/거문도 뱃노래 등 수곡

■ 관람료 R석 30,000원 · 일반 20,000원
청소년 10,000원

■ 문의 오페라제작소 밤비니(703-0737)

윤병용 클래식기타 귀국독주회

3월 14일 토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부산예술대 음악과와 독일 로스토크 국립음대 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클래식기타리스트 윤병용 귀국독주회.

윤병용은 현재 부산페스티벌 기타앙상블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프로그램

빌라 로보스/프렐류드 제 1번
바흐/류트를 위한 전주곡, 푸가와 알레그로 BWV. 998

줄리아니/대서곡 작품 61 등 수곡

■ 관람료 초대

■ 문의 윤병용(010-2224-0734)

황미리 귀국 플룻 독주회

3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프랑스 파리 Schola Cantorum 사범음악원과 Jean Wiener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Leopold Bellan 1위, Roger Bourdin 2위 등 다수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플루티스트 황미리 귀국 독주회.

■ 프로그램

드뷔시/시링크스
포레/환타지
메시앙/검은 티티새 등 수곡

■ 관람료 무료

■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Klar 플루트콰이어 제 3회 정기연주회

3월 21일 토요일 오후 6:00 소공연장

플루트앙상블의 활성화를 위해 결성된 Klar 플루트앙상블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우리에게 친숙한 클래식 명곡 및 영화주제곡 등을 들려준다.

■ 관람료 초대

■ 문의 이동희(016-582-5967)

바이올리니스트 황지원 독주회 테마콘서트 Ⅲ

3월 23일 월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콰르텟 뮤즈 멤버,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황지원 독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봄'을 테마로 한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베토벤/스프링소나타
그리그/소나타 2번 등
· 피아노/이진성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슈테츠 제 2회 정기연주회 이은재 & 이문숙 피아노 듀오콘서트

3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2007년 피아니스트 이은재와 그의 제자들로 결성된 슈테츠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피아니스트 이은재와 이문숙의 듀오무대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슈베르트, 모차르트, 브람스, 생상의 연주곡을

들려준다.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의 프렉스(317-2300)

정수란 작곡 발표회

3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국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작곡가 정수란 작곡발표회.

이번 무대에서는 첼로독주곡, 피아노독주곡, 현악4중주, 여성중창 등 다양한 창작곡을 들려준다.

- 관람료 초대
- 문의 정수란(011-9500-0469)

부산타악예술협회 제 4회 정기연주회 시민과 함께하는 신나는 드럼 연주회

3월 28일 토요일 오후 7:00 대공연장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타악기의 저변확대에 힘써온 부산타악예술협회가 마련하는 4번째 정기연주회.

관객들에게 친숙한 연주곡을 8대의 드럼으로 들려준다.

- 관람료 초대
- 문의 부산타악예술협회(501-0977)

어린이 국악뮤지컬 덩실덩실 깨비깨비

3월 28일 토요일 오후 2:00, 4:00
29일 일요일 오후 1:00, 3:00 소공연장

순진한 주인공 봉달이와 친구 도깨비간의 우정을 그린 작품으로, 판소리와 탈춤, 민요 등 전통 국악과 꼭두각시 놀음, 씨름, 제기차기 등 우리의 전래놀이와 접목시킨 국악체험놀이극이다.

- 관람료 균일 12,000원(기획사 전화예매시 3,000원 할인)
- 문의 DUBU기획(02-2654-6854)

정은정 귀국 피아노 독주회

3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이화여자대학교와 미국 인디애나음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정은정 귀국 독주회.

정은정은 그동안 두차례의 독주회를 비롯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 무대, 피아노 그랜드 페스티벌, 부산피아노듀오 협회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브람스/3개의 간주곡 작품 117
베토벤/소나타 마장조 작품 109 등

- 관람료 초대
- 문의 예은예술기획(632-6904)

4인 4색 콘서트

3월 3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소프라노 이은미, 테너 이승우, 메조소프라노 강희영, 바리톤 심정보 등 4인 성악가가 들려주는 4인 4색 콘서트.

베르디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라 트라비아타', 차이코프스키 '에프게니 오네긴', 마스네 오페라 '마농' 등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의 이은미(010-8277-4746)

봄을 여는 정엽의 첫 번째 라이브 콘서트

4월 4일 토요일 오후 4:00, 8:00
5일 일요일 오후 5:00 대공연장

제 7회 글로벌전국음악콩쿨

콩쿨장소 : 국제수준의 음향홀 글로벌아트홀
참가 대상 -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전공 및 비전공)

〈일 시 - 부문 별로 콩쿨 일자가 아래와 같음〉

성악 콩쿨 : 2009년 5월 2일(토) 피아노 및 작곡 : 5월 5일(화) 관현악 실내악 국악 : 5월 9일(토)
우수입상자 연주회 및 시상식 : 5월 31일 (일) 오후 5시

- 특 전 : 특별상 - 부산광역시장상 · 전체대상 - 부산대학교총장상 · 부문별 1등상 - 부산대문화콘텐츠원장상 글로벌아트홀관장상 · CD 및 DVD제작
- 접수기간 : 2009년 4월 13일~30일 · 신청금 : 7만원(국민은행 135701-04-117216 글로벌아트홀)
- 과제곡 : 자유곡 1곡(작곡은 당일 모티브 제시함) · 비고 : 악기별 및 대상별로 세분화하여 심사함
- 접수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한 후 glovil@paran.com으로 접수(방문접수 및 전화접수 가능)
- 문의 : 글로벌아트홀(051-505-5995) 기타 공지는 홈페이지(www.glovil.org)를 수시로 참조 바람



지난해 솔로음반을 발매하면서 국내 최고의 R&B 보컬리스트로 자리매김한 '브라운아이드소울'의 만형 정엽의 첫 라이브 콘서트.

- 관람료 R석 66,000원 · S석 44,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AN시티(1644-4484)

해운대문화회관

김덕수의 Dynamic 코리아

3월 28일 토요일 오후 5:00 대공연장



사물놀이를 창시한 예인 중 한명으로, 사물놀이를 전 세계에 알렸던 김덕수가 우리 전통의 노래와 춤, 음악의 진수만을 모아 새롭게 구성한 'Dynamic 코리아'.

- 관람료 VIP 40,000원 · R석 30,000원
A석 20,000원
(중고생, 20인 이상 단체 20% 할인)
-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2)

BEXCO

사라 브라이트만 내한공연

3월 20일 금요일 오후 8:00

클래식과 팝을 넘나드는 세계적인 디바 사라 브라이트만 2009 심포니 월드 투어.
지난 1980년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크리스



틴 역을 맡으면서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사라 브라이트만은 안드레아 보첼리와 듀엣곡 'Time to say Goodbye'로 팝페라의 장르를 연 후 그동안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로 사랑받아왔다.

- 관람료 VIP 180,000원 · R석 150,000원
S석 120,000원 · A석 90,000원
B석 7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AN시티(1644-4484)

KBS부산홀

원더걸스 첫 부산 콘서트

3월 21일 토요일 오후 6:00

- 관람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 B석 44,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AN시티(1644-4484)

개그콘서트 '개그선물세트'

3월 22일 일요일 오후 4:00, 7:30

- 개그콘서트 출연진이 선사하는 폭소한마당.
· 출연/변기수, 김재욱, 이상호, 이상민, 이동윤,
한민관, 허미영, 정범균, 서남용 외
- 관람료 VIP 66,000원 · R석 55,000원
S석 44,000원
- 문의 PS엔터테인먼트(611-7112)

어린이 난타-요리사편

4월 4일 토요일 오후 1:00, 3:00, 5:00,
5일 일요일 오후 1:00,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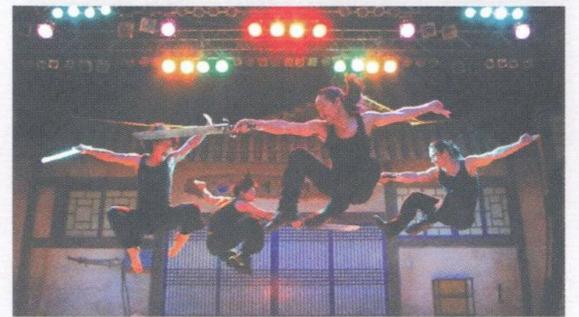
요리사들의 생일잔치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 나타난 착한 마법사들이 펼치는 신나는 노래와 마법의 세계 '어린이 난타'.

- 관람료 R석 35,000원 · S석 25,000원
- 문의 knp엔터테인먼트(1599-8879)

소극장

2009 점프 부산

1월 1일(금)-오프런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IBK 점프부산전용극장



한국의 전통무예인 태권도와 태권을 중심으로 한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과 유쾌한 코미디가 혼합된 언버벌 퍼포먼스 '점프'.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주)아트포(744-4885)

라디오, 잠시 길을 잃다(시즌 2)

1월 30일(금)-3월 1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5:00 공간소극장



생기발랄 사랑스러운 DJ '하소연', 재치만점 과시 DJ '하지만'과 함께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시간 리얼 라디오 토크쇼.

전문 뮤지션, 방송인, 예술가 등 진짜 게스트들의 깜짝 등장과 추억의 명곡에서부터 최신 유행곡까지 주옥같은 음악이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 작/박민지, 김세환
- 연출/김세환
- 출연/이정비, 김준영
- 관람료 일반 30,000원 · 청소년 20,000원
- 문의 공간소극장(611-8518)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소극장 >>

극단 새벽 창단 25주년 레퍼토리 기획공연 1 변현주 1인극 어머니 날 낳으시고

2월 5일(목)-3월 29일(일) 목-금요일
오후 8:00, 토-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실천무대



일란성 쌍둥이 두 자매의 회고를 통해 가부장적 제도 아래 억눌려 살다간 어머니의 거친 삶을 살갑게 그려낸 변현주 1인극 '어머니 날 낳으시고'를 선보인다.

· 작, 연출/이성민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 문의 소극장 실천무대(245-5919)

서툰 사람들

2월 13일(금)-3월 8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독신자 아파트에 살고 있는 교사 유화이의 홀로 사는 집에 초보 줌도둑 장덕배가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코믹 사회 풍자극.

· 작/장진 · 연출/이윤주

· 출연/변지호, 홍선주, 김지현, 염순식, 한상민 외

- 관람료 균일 2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극단 아센 상상하는 여자

2월 13일(금)-3월 8일(일) 평일 오후 7:30
토-일요일 오후 4:00(매주 화요일 공연없음)
미리내소극장



깜찍하고 당돌한 그녀의 상상 속에서 펼쳐지는 네 사람의 좌충우돌 로맨스를 그린 코미디극 '상상하는 여자'.

· 연출/호민

· 출연/구민주, 황자미, 김희지, 강철웅, 호민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의 미리내소극장(504-2544)

연극 광수생각

2월 14일(토)-3월 1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Red



1997년 일간지에 연재되면서 세대를 넘나드는 공감을 이끌어낸 카툰 '광수생각'을 무대화한 작품.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광수의 일상을 통해 가족과 연인간의 사랑과 우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 출연/김동현, 강지후, 오미란, 김태신, 변세영, 이송 외

- 관람료 균일 2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AN시티(1644-4484)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클래식에서부터 국악,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가톨릭센터 화요음악회.

3일 정유미, 고희정 피아노 듀오콘서트

영남대학교를 졸업하고 화명성당 반주자로 활동하는 정유정과 경성대학교를 졸업하고 거제동성당 반주자로 있는 고희정이 함께하는 피아노 듀오무대.

모차르트와 브람스의 연주곡으로 마련된다.

· 해설/장진규

10일 크로노스앙상블 초청연주회



2002년 창단 이후 바로크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부산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으로 자리잡은 크로노스앙상블 초청연주회.

■ 프로그램

텔레만/4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비발디/2대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 PV.411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KV.135 등

· 연주/이장호, 우소라, 이윤영, 조양희, 김은아,

신민정(바이올린), 박소영, 김상철(비올라),

김판수, 서송은(첼로), 박희철(더블베이스)

· 해설/장진규

레스토랑 모짜르트

예약문의.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맞은편 1층
리셉션·생일잔치·각종모임 예약 받습니다.
(10시~10시)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소극장 >>

■ 17일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2

푸치니의 대표적인 비극 오페라 '토스카'의 주요 아리아를 감상할 수 있는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

- 출연/소프라노 윤지영, 테너 허동권
바리톤 김상호
- 해설/장진규

■ 24일 아마빌리스 중창단과 함께

울산가톨릭합창단 단원들로 구성된 아마빌리스 중창단이 들려주는 성가곡의 밤.

- 출연/이영서, 유정, 조은정(소프라노), 이경미, 장은미, 탁경순, 허영재(메조소프라노), 강연희, 김종옥, 오성숙(알토)
- 반주/강지미 · 해설/장진규

■ 31일 앙상블 블루 초청연주회



1991년 도미너트앙상블로 첫 발을 내딛은 후 지난 2005년 관객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퓨전 현악앙상블로 새롭게 출발한 앙상블 '블루' 초청무대.

우리에게 친숙한 클래식 명곡과 영화주제곡을 들려준다.

- 연주/박광식, 박현정(바이올린), 박희철(콘트라 베이스), 한경수(피아노)
- 해설/장진규

■ 관람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 문 의 가톨릭센터
(441-3788, www.bccenter.or.kr)

부산發, 독립영화를 만나다

3월 12일(목), 19일(목), 26일(목)
시네마테크 부산(상영시간 미정)

경성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의대학교, 영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등 부산지역 대학 영화관련 학과 졸업작품들로 마련되는 시네마테크 부산 독립영화상영회.

■ 관람료 무료

■ 문 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www.cinema.piff.org)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3월 13일(금)-4월 5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조은극장 2관



가마골소극장의 거제동 이전에 따라 새롭게 탄생한 조은극장 2관의 첫 번째 작품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사랑을 갈구하는 아니 생긴 여자 주인공 박정봉의 무공해 유기농 로맨스극으로, 독특하면서도 다양한 캐릭터와 빠른 극 전개로 감동과 재미를 전해준다.

- 작, 연출/김민우
- 출연/류혜린, 황하규, 변은지, 이용탁, 차승호

■ 관람료 균일 2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조은극장(245-0042)

배우창고

그 여자들 다시 통닭을 먹다

3월 20일(금)-4월 5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 공간소극장



도시 변두리 구식통닭집을 배경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우리 이웃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창작극.

- 작/강병헌 · 연출/양지웅
- 출연/문성미, 김지혜, 서경화, 김병철, 김하영, 조정우

■ 관람료 균일 25,000원

■ 문 의 공간소극장(611-8518)

극단 일터 뮤지컬 너, 붉은사랑

3월 20일(금)-4월 19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화요일 공연없음)
일터소극장



일제강점기 소작농의 딸로 태어난 여주인공의 삶을 통해 농민운동과 노동쟁의를 정면으로 다뤘던 강경애의 1930년대 문제작 '인간문제'를 음악극으로 제작한 뮤지컬 '너, 붉은 사랑'.

- 연출/김기영
- 작곡/김미원 · 안무/손영성
- 출연/박성진, 김선관, 이수옥, 조기정, 박령순, 정영주, 임선미, 백대현 외

■ 관람료 일반 20,000원 · 대학생 15,000원
중고생 12,000원 · 초등생 10,000원
(예매시 20% 할인)

■ 문 의 일터소극장(635-5370)

러블리 뮤지컬 두드림 러브

3월 20일(금)-4월 1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9년간 연애편에 결혼했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이혼을 결심하는 두 남녀가 과거로 돌아가 있고 있었던 사랑의 소중한 추억을 깨닫게 되는 창작 뮤지컬.

- 작, 연출/최창열
- 출연/박시범, 김소향, 전소영, 김사라, 명재환, 전진희, 왕시명

■ 관람료 균일 30,000원
프로포즈석(2인석) 80,000원

■ 문 의 SM기획(1600-1602)

프라미스랜드 목요무대

3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프라미스랜드

대청동에 위치한 프라미스랜드에서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마련되는 문화예술한마당.



부산시립극단 단원을 역임하고 현재 마임극단 세진 대표로 있는 마임리스트 김세진의 마임무대로 꾸며진다.

- 관람료 무료
- 문의 포스커뮤니케이션(010-8422-554)

부산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제 14회 행복음악회

3월 29일 일요일 오후 5:00



글로벌아트홀이 매달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시민들을 위한 행복음악회.

부산지역 연주자들을 비롯 글로벌콩쿠르 우수 입상자, 음악을 사랑하는 아마추어연주자 등 다양한 연주자들이 무대에 선다.

- 관람료 무료
-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최정원, 전수경, 이경미의 버자이너 모놀로그

4월 4일 토요일 오후 4:00, 7:00
5일 일요일 오후 3:00, 6:00
동아대학교 석당홀



미국의 극작가이자 사회운동가인 이브 엔슬러가 200여명이 넘는 여성들과의 내밀한 인터뷰를 통해 쓴 원작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누구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여성의 성과 삶을 신랄하면서도 유쾌하게 그린 연극 '버자이너 모놀로그'.

뮤지컬 '맘마미아'의 히로인 최정원, 전수경, 이경미 등 디바 3인방의 3색 무대가 펼쳐진다.

- 관람료 균일 45,000원
- 문의 (주)M미디어(1600-8767)

행사

2009 화랑미술제-부산

3월 19일(목)-3월 23일(월)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참가화랑이 발굴, 지원하는 작가들의 우수한 작품을 소개하는 종합미술박람회 2009 화랑미술제.

- 관람료 일반 5,000원 · 학생 3,000원
- 문의 (사)한국화랑협회(02-733-3706, www.koreagalleries.or.kr)

전시

북천박물관 특별전 하늘에서 본 고구려와 발해

2월 10일(화)-4월 12일(일)
북천박물관 기획전시실

위성사진 등을 통해 우리가 가보기 힘든 고구려와 발해의 대표적인 유적을 소개 하는 특별전.

•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휴관)

- 문의 북천박물관(554-4264)

제 9회 타워현대여성작가전

2월 23일(월)-3월 14일(토)
3월 25일(월)-3월 31일(화) 타워갤러리

-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노충현 초대전

2월 27일(금)-3월 12일(목)
롯데화랑 부산점



- 문의 롯데화랑 부산점(810-2328)

박은주 개인전

3월 6일(금)-3월 30일(월)
부산프랑스문화원 전시실

- 문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강인주 개인전

3월 13일(금)-3월 19일(목)
롯데화랑 부산점

- 문의 롯데화랑 부산점(810-2328)

유정후 개인전

3월 20일(금)-3월 26일(목)
롯데화랑 부산점

- 문의 롯데화랑 부산점(810-2328)

www.wendl-lung.co.kr

The early years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이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우리 음악으로 이끄는 징검다리

FM풍류마을

권은영_부산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한국음악 교양강좌 첫 시간, 딱히 우리음악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학점이나 때울 요량으로 모여든 학생들이 별 의욕 없이 앉아 있다. 나는 아무런 설명 없이 음반을 하나 틀었다. 갓 물이 오른 버드나무 가지 사이를 스치는 봄바람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소금 소리가 차분한 기타 선율을 뿜어내며 오랜 겨울잠으로 무더진 학생들의 감각을 깨우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한 것이다.

트랙을 좀 뛰어 이번에는 다들 알만한 민요 '천안도 삼거리'를 가야금 병창으로 들려주었다. '천안도 삼거리'를 가야금을 타며 부르는 걸로 봐서 국악임에는 분명한데 뭔가 이상한 듯, 재미있는 듯 학생들의 입가에 야릇한 미소가 떠오른다. 아하! 재즈버전으로 부르는 가야금병창이라... 다시 트랙을 뛰어 플루겔 혼이 아닌 태평소 협주곡 '산체스의 아이들'을 들려주었을 때 학생들은 눈빛만으로도 아니라 소리와 몸으로 반응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자 첫 시간 맛보기는 이쯤하고 우리 함께 이런 음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 음악의 '마농의 샘'을 찾아 가 볼까요?" 이렇게 시작된 한국음악 교양강좌가 끝날 무렵, 어떤 장르를 막론하고 우리 음악을 하나 선택하여 감상문을 써내는 리포트에서 뜻밖에도 많은 학생들이 가곡, 수제천과 같은 순수 전통음악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 음반 'FM풍류마을'은 우리음악으로 이끄는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낸 샘이다.

'우리음악으로 이끄는 징검다리 FM풍류마을'은 KBS 제1FM, FM풍류마을의 PD 이진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고,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새롭고 편한 국악곡을 모아 내놓은 음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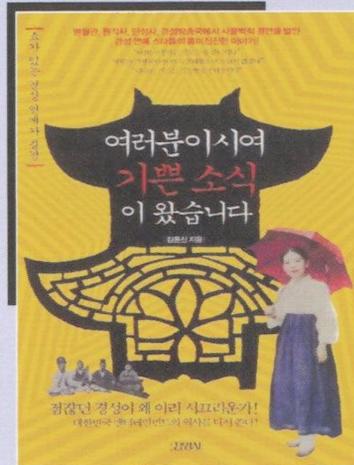
'멀리서 바라볼 때 좀 어려워 보이던 사람이 가까이 만나보니 뜻밖에도 다정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음악 역시 얼핏 듣기엔 어려워 보일 지라도 그 숨결이 느껴지도록 가까이 마주 앉아 보면 그 다정함을 오롯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만남에 오가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다정한 눈길, 부드러운 숨결 같은 음악을 모아 우리 음악과의 첫 만남으로 이끄는 징검다리를 놓으려고 합니다'라고 한 그의 말처럼 이 음반에 수록된 음악들은 낯선 과거의 국악이 아니라 우리시대 모든 음악들과 대화하며 어울리는 오늘의 국악이다.

이 음반에 실려 있는 곡들은 모두 독특한 색깔을 지니고 있다. 소금과 기타가 어우러진 '마음속의 풍선', 국악 실내악단 슬기둥의 신명나는 '들춤', 가야금과 하모니카가 그려내는 우연한 사랑의 느낌 '여우비 오던 날', 재즈의 감수성이 더해진 매혹적인 가야금 병창 '천안도 삼거리', 제주의 자연처럼 아름다운 노래 '산천초목', 스톤재즈 그룹이 연주하는 '도라지', 민요 '박연폭포'가 피리와 전자 악기에 실려 매혹적으로 다시 태어난 '아름다운 입술', 거문고 연주단 앙상블 '거문'이 연주하는 심금(心琴)을 울리는 '달하', 아이들의 맑은 소리와 어우러진 '강원도 아리랑', 태평소 선율을 타고 온 이국의 향기 '산체스의 아이들'과 같이 다양한 악기가 익숙한 전통음악들을 새롭게 해석하여 또 다른 오늘의 음악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이 음악들이 마냥 가볍기만 한 퓨전음악들은 아니다. 하나하나 그 내력을 따져 보면 그 소재와 표현방법이 모두 전통에 기반하고 있는 뼈대 있는 음악들이다.

특히 네 번째 곡인 '산천초목'을 한번 들어 보시라. 신디사이저 반주에 맞추어 한 여자가 느리고 밋밋한 가락의 노래를 부른다. 창법은 우리의 전통 시조나 가곡과 같은 정가풍이다. '산천초목'에서 이 여류가객은 몇 안 되는 음을 가지고 어루고 달래면서 가사가 지닌 사연을 속속들이 풀어낸다. 순수 전통 가곡이나 시조가 부담스러웠던 사람이라도 강권순이 부르는 '산천초목'의 신비한 매력에는 빠져들고 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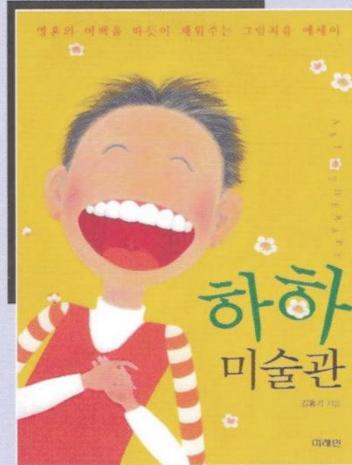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상처럼 벌어지는 요즘, 어깨를 토닥거리며 작은 위안이 되어주는 친구 같은 음악들로 밝은 세상을 꿈꾸어 본다.



여러분이시여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김은신 지음
김영사 / 368p /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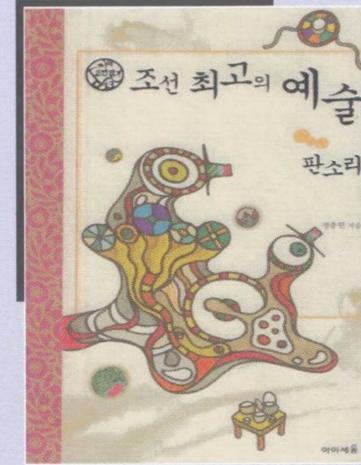
오늘날 연예인들은 대중적인 인기를 모으고 청소년들의 우상이 되었다. 옷차림은 물론 가능하다면 머릿속까지도 닮고 싶어 하는 마니아 팬도 많다. 예전에는 어떠했을까. 오늘날의 연예인과 비슷한 입장이었던 것 같다. 이 책은 구한말부터 광복 전까지 약 50년에 이르는 근대 경성의 연예사이다. 한일합방 후 궁궐에서 기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돈을 내고 공연을 보는 사설공연장이 생기며 경성은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소리꾼·재담가·만담가가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고, 라디오·유성기·활동사진(영화)에서는 연일 '쇼'가 벌어졌다. 이 때의 연예사에는 '한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한국 최초의 극장, 최초의 흥행사, 최초의 영화, 최초의 연극배우, 최초의 가수, 최초의 입장료, 최초의 코미디언, 최초의 음반, 최초의 방송... 이 시기 연애가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자. 저자는 신춘문예 소설부문을 두 번 통과(경향신문, 한국일보)하고 출판사와 잡지사에게 근무하면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해온 작가이다. 지은이는 특히 우리나라 근현대 문화사의 뿌리를 찾는 일에 주력해왔다. 그중 문화사 각 분야와 실핏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초창기 연예사를 다룬 것이 바로 이 책이다.



하하 미술관

김홍기 지음
미래인 / 245p / 12,800원

우울한 소식만 가득한 세상에 상처 받은 마음을 다독이고 어루만지는 따스한 그림 에세이다. 미술치료에서 고통을 다루는 19가지 기술을 적용하여, 스트레스로 인해 거칠어진 호흡을 조율하는 법, 깊은 상처에 무뎠던 감각을 다시 버리는 법을 익히게 해준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 미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 교양을 목적으로 한 것이든 그림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든, 기존의 그림 에세이들이 서양 명화에 대한 해설에 치중한 것과 분명하게 대별되는 부분이다. 아시아 미술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권경엽, 2008 정현메세나 재유립 청년작가상 수상자인 홍일화, 국내 만화학 박사 1호인 이순구, 한국화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기대주였으나 2007년 요절한 주정아 등 28명 작가의 면면은 다채롭다. 그들의 그림에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실존적 고민과 아픔을 꺼안고 미적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 현대 미술을 어렵게만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림과 친해지는 계기를, 서양 명화에만 길들여져 있는 이들에게 한국 미술의 새로운 흐름과 그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조선 최고의 예술 판소리

정출헌 지음
아이세움 / 271p / 12,000원

부산대학교 한문학과에서 고전소설을 연구하는 한편 우리 고전을 학생 및 일반인에게 쉽게 소개하는 작업에도 노력을 기울여 온 저자가 판소리의 가치를 말해준다. 재미있는 볼거리가 많은 세상, 판소리는 저만치 뒷전으로 밀려나 버린 것 같다. 새삼스럽게 왜 이런 고리타분한 주제의 책이냐 하는 생각을 하지도 모르겠지만, 판소리야말로 우리 조상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예술이다. 판소리가 모든 백성들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춘향과 이도령', '심봉사', '흥부와 놀부', '토끼와 자라'가 등장하는 판소리를 생각해 보자. 춘향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기생이었고, 심청은 자신에게 닥친 비극을 목숨과 바꾸어야 했던 가련한 여인이었고, 흥부는 수많은 식물을 거느린 궁핍한 가장이었고, 토끼는 아무 잘못도 없이 목숨을 빼앗길 위기에 빠진 약한 동물이었다. 하나같이 힘없고 미미한 존재들이었던 것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렇고 그런 인물들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이들은 자신의 희노애락을 투영시켜 받아들였던 것. 이런 것이 판소리를 최고의 고전이라 일컫는 까닭이다.

벽화로 따뜻한 세상 꿈꾸는 거리의 미술 동호회 부산모임



도시의 삭막함을 더하는 거리의 차가운 벽면이 어떤이들에게는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된다. 벽화를 그리는 사람들 ‘거리의 미술 동호회 부산모임 (이하 거미동, cafe.daum.net/streetart)’, 그들의 손이 스치면 회색빛 콘크리트 벽면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난다.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눠가질 수 있다면 이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출발했습니다.”

현재 ‘거미동’ 회장을 맡고 있는 전영주 씨는 벽화가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미동’은 지난 2000년 온라인동호회에서 출발했다. 동호회의 특성상 지역별로 모임을 가져오다 이듬해 1월 동호회의 주축을 이루던 부산지역 동호인들이 부산모임을 따로 결성하면서 본격적인 벽화작업을 가져오고 있다.

온라인 회원은 500여명이 넘지만 실제로 벽화작업에 참여하는 회원은 30여명 안팎. 대부분 미술 전공자이지 않을까 하는 예상과 달리 회원들 중에는 비전공자들이 많다. 공동작업인 만큼 회원들의 실력 여부를 떠나 모든 회원들이 벽화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초보회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은 그려진 시안에 색칠하는 일. 초보자라도 자주 참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이 늘고 결국 손이 따라 하게 된다고 한다. 동호회에서도 워크샵을 통해 밑그림

그리기, 채색법 등을 강습해 비전공자들의 실력향상을 돕고 있다.

초창기만 하더라도 알음알음 지인들의 소개로 벽화작업을 가져왔지만 지금은 입소문을 타면서 제작의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벽화 제작의뢰는 현재 동호회 카페의 온라인 게시판 ‘벽화를 그려주세요’를 통해 신청 받는다. 접수 후에는 일단 벽화가 그려질 곳에 사전답사를 먼저 나가는데 벽의 크기와 벽면 상태, 작업환경 등을 꼼꼼히 점검한 후 제작여부를 결정한다. 벽화제작이 결정되면 카페 게시판에 공지해 참가신청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벽화의 시안 도안은 회원들의 의견을 조율해 결정한다.

회원들 대부분이 직장인이라 벽화작업은 주로 주말을 이용해 열린다. 야외작업인 만큼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은 벽화작업을 하지 않는다. 벽화의 규모도 천차만별이라 하루만에 끝나는 간단한 작업에서부터 2~3주 넘게 걸리는 대형벽화 작업까지 다양하게 진행하다보면 두달에 한번 꼴로 작품이 탄생된다.

대연동에 소재한 어린이 도서관 ‘샘터도서관’ 벽화도 ‘거미동’의 작품이다. 규모면에서는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벽화 속에 담기 위해 어느 벽화보다도 심혈을 기울인 작품으로 회원들은 기억한다. 또, ‘거미동’은 부산의 새로운 볼거리로 등장한 문현동 안동네 ‘벽화거리 시범사업’에도 지난 6월 참여했다. ‘거미동’ 회원을 비롯해 3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문현동 안동네 벽화’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주거환경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거미동은 출발부터 지금까지 벽화제작에 드는 실재료비만 받고 무료봉사해왔다. 그러나 정작 거미동 회원들은 봉사가 아닌 ‘나눔’이라는 말을 즐겨쓴다. 바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주는 벽화가 그들에게는 ‘나눔’인 것이다.

■문의/거리의 미술 동호회 부산모임 (cafe.daum.net/streetart)

부산시립교향악단 통영국제음악제 오케스트라 콘서트 무대 장식

- 3월 30일(월) 오후 7:30 통영시민문화회관 -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올해 9회째를 맞이하는 2009 통영국제음악제(TIMF) 오케스트라 콘서트에 초청받아 3월 30일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연주한다.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의 고향 통영에서 개최되는 통영국제음악제는 전 세계 음악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음악축제이다. 통영국제음악제에는 매년 동서양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초청되어 화려한 앙상블을 펼친다.

세계적인 연주 단체들과 나란히 통영국제음악제에 초청받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은 1997년 창단 35년을 기념한 미국 4개 도시 순회 공연을 성공리에 마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로부터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연주회였다”는 찬사를 받으면서 국제 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2009년 통영국제음악제 페스티벌 시즌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외에 국내외의 주요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총 17개의 공식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TIMF의 새로운 예술감독으로 선임된 알렉산더 리브라이히의 지휘로 열리는 뮌헨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개막공연과 말리의 '대지의 노래'가 울려 퍼질 웅장한 폐막 공연,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인 노던 시포니아와 봄밤의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 나이트 스튜디오, 이동신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회 등 다양한 테마 연주로 청중들과 만날 예정이다.



■ 통영국제음악제 일정

3월 27일	19:30	개막연주회 뮌헨 체임버 오케스트라 I
	22:00	나이트 스튜디오 I 현대음악앙상블
3월 28일	14:00	뮌헨 체임버 오케스트라 II
	17:00	실내악 콘서트 콰르텟 21
	20:00	로비 라카토시 '집시바이올린'
3월 29일	14:00	아시아의 젊은 작곡가들
	17:00	폴란드 라디오방송 합창단
	20:00	최희연 피아노 독주회
3월 30일	17:00	한국의 작곡가들
	19:30	오케스트라 콘서트 부산시립교향악단
	22:00	나이트 스튜디오 II 최희연과 친구들
3월 31일	19:30	노던 시포니아 I
	22:00	나이트 스튜디오 III 셸린느 프리쉬
4월 1일	19:30	노던 시포니아 II
	22:00	나이트 스튜디오 IV 미에 미키 & 강윤지
4월 2일	17:00	콩쿠르 입상자 시리즈 바르토슈 코지악
	19:30	폐막연주회 대지의 노래

부산시립예술단 3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부산문화회관에서는 3월 한달동안 관객들을 직접 찾아나서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과 시청 로비콘서트를 개최한다.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은 3월 3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공연을 시작으로 구포도서관, 해군작전사령부 등에서 공연을 갖는다. 매주 수요일 오후 12:30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리는 로비콘서트에서는 부산시립극단과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출연,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3월 1일(일)	오전 10:00	시민회관 '3·1절 기념행사' -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3월 3일(화)	오후 2:00	시청 대강당 '제34회 납세자의 날 기념공연' - 부산시립교향악단
3월 6일(금)	오전 10:00	강서구 다목적운동장 '대저지구생태하천 조성사업 기공식 행사' - 부산시립합창단
3월 14일(토)	오전 11:00	구포도서관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3월 20일(금)	오후 1:30	해군작전사령부 - 부산시립무용단



■ 부산시청 로비 콘서트

3월 11일(수)	오후 12:30	부산시립극단
3월 25일(수)	오후 12:30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오는 대나무숲에서 함께한 부산시립예술단 2월 테마여행 사천 비봉내마을과 다솔사

겨울 가뭄에 소중한 단비가 내리던 지난 2월 13일, 2월 테마여행을 떠나기 위해 40명의 정기회원 가족들이 비내리는 이른 아침부터 부산 문화회관 주차장에 모였다. 2월의 테마여행지는 대나무 체험으로 유명한 사천 비봉내마을과 다솔사.

거세어지는 빗줄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하루 무사히 여행을 끝낼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기나긴 가뭄 끝에 내리는 귀중한 단비라 정기회원 가족 모두 밝은 표정으로 여행길에 올랐다. 굵은 빗줄기와 거센 강풍으로 예정보다 한시간 가량 늦게 도착한 비봉내 마을에는 강태욱 촌장이 미리 나와 정기회원 가족들을 반겨주었다. 다행히 그칠 줄 모르던 빗줄기도 잠시 잠잠해지면서 서둘러 대나무숲 체험을 시작했다.

비봉내마을의 대나무숲 체험장은 1965년부터 조성된 국내 최대의 대나무숲으로, 약 1만여평의 대나무숲에 맹종죽, 왕대, 솜대 등 다양한 대나무가 조성되어 있다. 죽어가는 어머니를 살린 중국 맹종의 효심에서 유래된 맹종죽에 관련된 일화를 시작으로 각종 대나무의 특성과 종류, 효능 등 대나무에 관한 상세한 설명에 정기회원 가족들은 하나라도 놓칠새라 귀를 기울였다. 또, 비온 후 물기를 가득 머금은 대나무숲길을 산책하며 정기회원 가족들은 모처럼 자연이 선사하는 아름다움에 흠뻑 빠졌다.

대나무숲 산책을 마친 회원가족들은 곧바로 그윽한 향이 일품인 댓잎차 만들기 체험을 가졌다. 어른들이 대나무잎을 썰어 불에 덥는 과정까지 댓잎차 체험을 하는 동안 아이들은 죽초액으로 대나무 비누를 만들고 비누가 굳는 동안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었다. 짧은 시간에 만든 피리로 아이들이 즉석에서 합주를 선사, 많은 박수를 받았다.

맛있는 점심으로 이른 아침 출발로 허기졌던 배를 채운 정기회원 가족들은 다솔사 탐방으로 오후 일정을 시작했다. 봉명산 아래 자리잡은 다솔사는 마치 산자락이 많은 군사를 거느린 대장군처럼 보여 '다솔(多率)'이라는 이름이 부쳐졌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에 항일운동을 펼쳤던 만해 한용운 선생과 최범술 선생이 기거한 곳으로 유명하며 소



설 '등신불'의 작가 김동리 선생이 이 곳에서 야학교사로 일하며 '등신불'을 썼다고 전해진다.

다솔사는 여느 절과 달리 일주문이나 천왕문이 없이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운치를 더한다.

“다솔사 입구에 있는 이 바위는 어금혈이라고 하는데요, 1885년 이곳 주변에 묘를 쓰면 후대에 임금이 태어난다는 속설이 퍼지면서 당시 임금이던 고종이 다솔사 주변에는 절대 묘를 쓰지 못하도록 금했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바위입니다. 그러나 변변한 안내판 하나 없어 대부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지요.”

이 곳 토박이인 강태욱 촌장의 해박한 해설에 그냥 왔으면 지나쳤을 어금혈과 장군바위, 108계단, 해우소 등 절 안내서에는 나와있지 않는 다솔사의 다양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었다.

다시 거세어지는 빗줄기 때문에 비토섬에서의 굴구워먹기 체험이 힘들어지자 정기회원 가족들은 다시 대나무숲 체험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가는 길에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예정에 없던 사천녹차단지를 돌아보게 된 회원들은 15만평의 끝없이 펼쳐진 야생녹차밭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때맞춰 빗줄기도 잦아들면서 여행길에 함께 동행했던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서정숙, 김주령 씨의 지도로 수건을 이용한 우리춤 체조시간을 가졌다. 돌아오는 길, 차량 바퀴가 진흙에 빠지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이것도 지나가면 다 추억이라는 듯, 회원들은 떨어진 야생차 씨앗을 줍는 여유로움을 보이기도 했다.

2월 테마여행의 마지막 일정은 굴 구워먹기. 비토섬을 바라보며 바닷가에서 구워먹지 못해 아쉬웠지만 숯불에 구어진 굴은 하루일정으로 허기진 회원들에게 잊을 수 없는 맛과 빼먹는 재미를 주었다. 짭조름한 굴에 이어 오전에 만든 그윽한 댓잎차 시음까지 한 정기회원 가족들은 어두워지는 사천을 뒤로하고 부산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4월 청도한옥학교

2009년 4월에는 청도한옥학교로 봄 여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을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부로 보내주시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 3월 15일)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테마여행 협찬 : (주)레임투어편(442-1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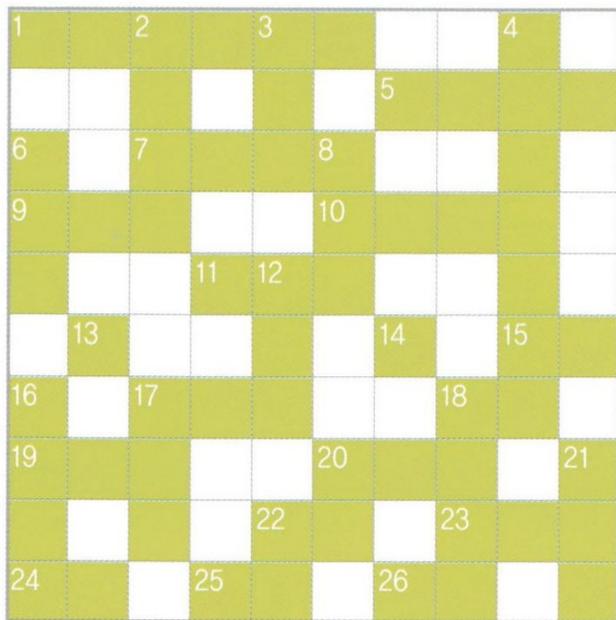
3월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가입자

강순심(동래구 사직2동)
김선재(동래구 온천2동)
윤연경(부산진구 당감3동)
손병철(동래구 온천2동)
우귀화(금정구 구서동)
이성원(금정구 부곡3동)
이순재(남구 용호동)
이인호(부산진구 초읍동)
지윤성(부산진구 부전2동)
하수민(북구 화명동)

엽서당첨자

강학순(동구 초량3동)
김수진(해운대구 반여3동)
김재환(남구 용호동)
남하윤(서구 서대신동 3가)
박종술(남구 대연 6동)
이호숙(사상구 모라2동)
임영진(동구 수정2동)
손정민(서구 서대신동 3가)
조미정(북구 화명동)
조종호(부산진구 전포1동)



가로

1. '브로드웨이 뮤지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릴러'라는 극찬을 받은 뮤지컬. 3월 6일부터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5. 미국의 작가 에드가 앨런 포가 젊은 나이로 사망한 어린 아내를 추모하며 쓴 낭만주의적 연애시. '오래고 또 오랜 옛날 바닷가 어느 왕국에~'
7. 팔순 농부와 마흔살 소의 동거동락을 감동적으로 그린 이충렬 감독의 독립다큐멘터리. 관객수 100만명 돌파로 한국 독립영화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9. 초고밀도에 의해 생기는 중력장의 구멍. 항성의 진화 최종단계에서 그 중심부의 밀도가 빛을 빨아들일 만큼 매우 높아지면서 생기는 중력장의 구멍.
10. 덴마크의 수도.

11. 동영상 이미지와 소리를 내부 기억장치에 기록하는 휴대용 전자기기. 비디오 카메라와 비디오 카세트 리코더의 합성어.
13. 단군의 어머니 웅녀가 사람이 되기 위해 먹었던 음식. ○과 마늘.
14. 난초의 포기를 세는 단위.
15. 영문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의 머리글자. 이메일을 통해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 주는 사이버 관광가이드이자 사이버 외교사절단
17.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예술마을. 파주지역의 전래농요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18. 하동의 만석꾼 집안인 최참판댁의 몰락과 재기를 통해 한국 근현대사를 담은 박경리의 대하소설.
19. 중부유럽 발트해에 면한 나라. 제 2차 세계대전으로 독일과 소련에 분할 점령되었으나 1945년 해방되었다. 수도는 바르샤바.
20. 경북 영주에 위치한 화엄종의 근본도량.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목조건물로서는 봉정사 극락전과 함께 가장 오래된 국보 18호 무량수전이 있다.
22. 정치, 경제의 중심을 이루었던 고대 로마시대의 공공 집회광장을 일컫는 말로, 현재는 공개토론회를 가리킨다.
23. 인간의 부귀영화가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불교적 인생관을 주제로 한 조선시대 문인 김만중의 장편소설.
24. 조선시대 임금의 후궁에게 난 딸을 이르던 말.
25. 단지에 불을 넣어 공기를 희박하게 만든 다음 부스럼 자리에 붙여 고름이나 독혈을 빨아내는 일.
26. 폴란드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특히 200여곡에 이르는 피아노곡으로 유명하다.

세로

2. 팝의 교황, 팝의 디바로 불린 미국 팝아트의 선구자.
3. 우리나라의 이론물리학자. 1977년 미국에서 의문의 자동차 사고로 죽으면서 그의 학문분야 및 정치성향과는 무관하게 쓰여진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4. 중세 독일의 신화를 바탕으로 작곡된 바그너의 대작 오페라. 라인의 황금, 발퀴레, 지그프리트, 신들의 황혼 등 4개의 악극이 상연된다.
6. 종이에 대리암 무늬를 만드는 기법. 물 위에 유성 물감을 떨어뜨려 저은 다음 종이를 물 위에 덮어 물감이 묻어나게 한다.
8. 세로로 부는, 플루트의 한 종류인 목관 악기. 부드럽고 밝은 음색을 지닌다.
12. 명태를 약 15일간 구들구들한 상태로 말린 것. 네 마리씩 코를 꿰어 판다고 하여 부쳐진 이름이다.
16. 1804년 황제의 자리에 올라 제 1제정을 수립하고 유럽대륙을 정복하였으나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여 세인트헬레나섬에 유배되어 그 곳에서 죽은 프랑스 황제.
17. 트랜스젠더 록 가수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그린 록뮤지컬.
18.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에게 살아 먹히게 된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사자성어.
20. 음력 정월대보름날 새벽에 깨물어먹는 견과류. 이것을 깨물면 한 해동안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21. 판소리 '춘향전'의 남자주인공.
22. 경상북도 북동쪽 동해안에 면해 있는 시. 종합제철공장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지 근 해 정 단



퍼즐당첨자 명단

■ 조은극장

- 송미령(사하구 대대1동)
- 전선영(해운대구 반송1동)
- 하예진(수영구 남천동)
- 허수희(금정구 구서동)
- 하준엽(사하구 괴정2동)

■ 큰집

- 김종렬(연제구 연산5동)
- 김현영(서구 서대신동 2가)
- 박정도(사하구 대대동)
- 백종순(연제구 연산 7동)
- 변현미(영도구 영선동)

■ 나랏소

- 김연경(부산진구 양정1동)
- 이경준(수영구 수영동)
- 이관우(동구 범일6동)
- 이인순(부산진구 연지동)
- 김은임(부산진구 범전동)

■ 공간 소극장

- 김명화(영도구 영선동 4가)
- 김용기(북구 만덕1동)
- 안현희(해운대구 우2동)
- 박말순(중구 영주동)
- 김잔디(양산시 중부동)

남포동과 광복동의 새로운 문화공간

조은극장

TEL.051-245-0024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셀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최고급 한우만을 공급합니다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고향 전문점

TEL.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사계절 문화공연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곳 부산에는 공간 소극장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사계 공간소극장

(051)611-8518

문화공간사계 cafe.daum.net/say012

◎ 보내실곳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09년 3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연극 '서툰사람들'

바람은 조금 불지만 따뜻했던 일요일 오후, 잔뜩 기대하고 서툰 사람들을 보러 갔다. 배우들의 능청스럽고 제대로 된 열연에 흥겨웠고 공연시작부터 끝날때까지 하루종일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연극 이었다. 신나게 웃고 즐기기에 딱인 연극인것 같았다. 그래서 이런 저런 무거운 감정들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던 만큼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 김 수 진(금정구 서동)

토요상설무대 '망초꽃 향기'

작품보다는 그 연기자를 보려고 공연장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다. 혼자 전 무대를 이끌어 가는 연기자의 역량과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노드라마. 역시 그녀, 정행심이였다. 그녀가 히빠리촌 창녀이던 그 시간엔 우리도 그 골목 꽃순이의 가슴으로 같이 있었다. 언젠가 그녀의 끼와 열정을 더 만끽할 수 있는 다음 작품을 기다린다.

- 하 예 진(수영구 남천2동)

부산시립교향악단 웰빙콘서트 '오페라와 만나요'

여유있는 오전시간 모처럼 음악회를 갔는데, 짧았지만 연극도 덩으로 감상하고 뜻밖의 선물을 받은 것 같네요. 벨칸토 작곡가 3명을 만나 즐거웠고, 짜임새 있는 구성에 시간가는 줄 몰랐습니다. 로시니의 마지막 대사처럼, 좋은 공연 많이 보면서 즐겁게 살고 싶네요. 다음 공연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 박 재 홍(남구 용호동)

부산국제음악제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연주회'

백발의 대가 로렌스 레쎌와 피아니스트 백혜선의 만남이라 공연장을 찾기 전부터 기대가 컸다. 6시부터 시작된 음악회가 끝난 시간은 10시 10분. 잠시의 휴식시간이 있었지만 3시간이 넘는 연주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느낄 수 없을 정도였고 연주시간 내내 내 몸과 마음이 맑아진 느낌이 들었다. 로렌스 레쎌 선생님이 곡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백혜선 씨가 통역해주는 모습은 대가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청중에 대한 애정을 읽을 수 있었다.

- 주 민 희(수영구 민락동)

한낮의 유콘서트

아름답고 편안한 연주곡들이 귀를 즐겁게 하고, 멋진 의상과 무대매너로 노래하는 가수 정훈희는 눈을 즐겁게 하고 멋진 성악곡과 첼로곡은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공연 도중에 자리를 나가는 분들의 매너. 공연 예절은 지켜가면서...

- 박 말 순(중구 영주 1동)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고향 전문점

나랏소란?
그 옛날 나랏남께서 드시던 우리
나랏소 한우를 뜻합니다.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 모집
(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7~8)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극장용
마당놀이

학생부군신위



화 나 장 하 게 서 네

바자장대소,
포복전도!



2009. **4.11** (토) 오후 3:00, 7:00



부산문화회관대극장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문화회관 (주)현진씨네마

후원 |  Focus

티켓 | R석 5만원·S석 4만원·A석 3만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할인)

예매 | ticketlink 티켓링크 1588-7890

문의 | 부산문화회관 051-607-6058

2009년 봄, 마당놀이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 된다!

영화와 마당놀이, 판소리와 댄스음악의 파격적인 만남!

박장대소, 포복절도 그리고 눈물과 감동 ...

1996년 제작된 박철수 감독의 영화 <학생부군신위>를 새롭게 각색한 마당놀이
<학생부군신위(學生府君神位)-환장하겠네> 부산 공연 결정!

몬트리올 영화제 최우수상, 타슈켄트 영화제 그랑프리 수상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인정받은 원작영화의 탄탄한 시나리오

원작영화의 감독이자 한국영화계의 장인 박철수 감독이 직접 연출
오정해, 홍경인, 이창훈, 신신애, 장용 등 화려한 배우들의 열연

국악과 양악을 넘나드는 새롭고 독창적인 음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신 개념 마당놀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죽음 앞에서
마당놀이의 풍자와 해학을 빌려 걸쭉한 농으로 마당놀이의 새로운 변신이 시작된다.



부산문화회관 21주년 기념 정기회원 특별 혜택

해외여행비 5% 할인 받자!!



* 하나투어예약센터 Hi!하나로 예약확정 하실 때 특별혜택을 드립니다.
* 전국 대표전화 051) 442-1271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 협찬사 Hi!하나

www.hihana.co.kr

NAVER

하이하나

3월! 특가여행

여행의 내용은 알차게
여행 요금은 저렴하게



브랜드 출범특가
상해/소주/항주 4일 (서호유람 포함)
CCP753 269,000원~



한정특가
아소/유후인/벳부 4일
JKP742 369,000원~



천국같은 휴식
방콕/파타야 5일 (아로마스파)
AAP701 399,000원~

이모저모 태국여행

지금까지 흔한 태국
여행과는 다른 여행



정글투어
방콕/칸차나부리 5일
AAP741 599,000원~



감쪽특가
방콕/치앙마이 5일
AAP761 599,000원~



독특한 문화체험
방콕/라오스 5일
AAP751 859,000원~

알뜰여행족 만족1위여행

잊을 수 없는 체험!
알뜰한 추천 일본여행



쾌속선 코비 타고 떠나는
북큐슈 온천여행 3일
JKP721 399,000원~



팬스타 타고 떠나는
오사카/교토/나라+고베 또는 USJ
JOP751 399,000원~



카멜리아 타고 떠나는
북큐슈/하우스텐보스 4일
JKP752 499,000원~

떠나요~ 제주여행

제주도 푸른밤~
봄날에 떠나는 제주여행



세계문화유산탐방
한라산 등반과 제주여행 3일
AKPK52 219,000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섬
우도와 제주여행 3일
AKPK51 230,000원~



4년 연속 우수여행
웰빙 제주여행 3일
AKPK50 302,000원~

Hi HANA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

하나투어 HANATOUR

부산본점) 051-442-1271 서울점) 1544-1759 대구점) 053-423-1271
마산점) 055-253-1271 울산점) 052-222-1271

전화 상담시 [상품코드]를 알려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화회관 회원님들은 상담시 정기회원임을 밝혀 주시면 5%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문화회관 담당자 : 박상헌 직통전화 070-8270-8858 / 이순남 직통전화 070-8270-7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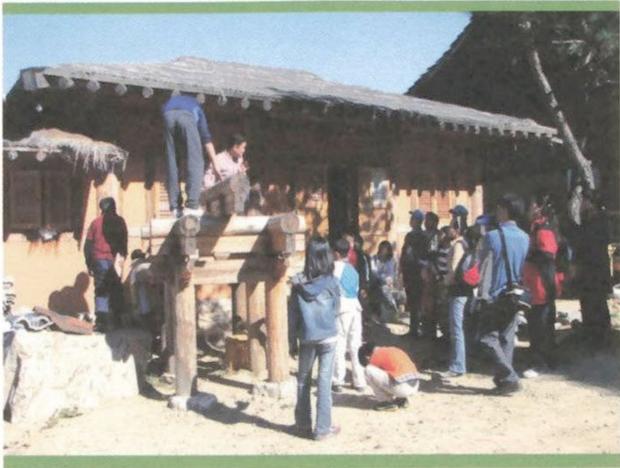
전국 대표전화 (국번없이)

051) 442-1271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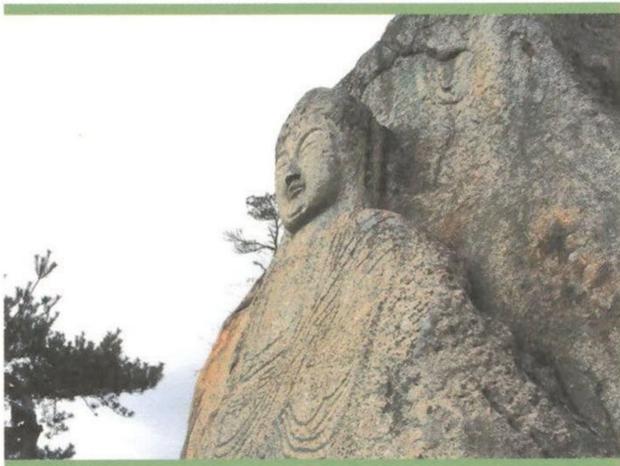
2009년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2009년 4월 10일(금) 우리의 삶터 한옥을 찾아서

한옥은 민족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우리의 삶터이다. 청도의 얼이 깃든 문화 유적과 한옥의 정신을 알리고 있는 청도한옥학교에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배워본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청도 도착, 석빙고, 도주관 등 청도 문화유산 답사
- ▷ 12:00 청도한옥학교 도착, 중식
- ▷ 13:00 한옥 이해, 창살만들기, 먹농기, 초익공 해체조립, 떡 만들기
-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7:00 부산으로 출발



▶ 2009년 5월 8일(금) 민족문화의 산실 경주 남산

왕릉 13기, 산성지(山城址) 4개소, 사지(寺址) 147개소, 불상 118체, 탑 96기 등 672점의 문화 유적이 남아 있는 남산은 신라의 흥망성쇠를 함께 한 서라벌의 진산, 역사의 산이다. 자연과 예술이 조화되어 있는 민족문화의 산실 남산으로 역사여행을 떠난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서남산-탑골 부처바위, 보리사 석굴좌상
- ▷ 12:00 중식
- ▷ 13:00 동남산-삼릉, 선각육존불, 상선암 마애대좌불, 배리삼존불, 포석정
- ▷ 17:00 부산으로 출발

※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 테마여행 응모방법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예술에의 초대〉에 있는 응모엽서를 작성하고 3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 한달동안 신규가입한 회원 중에서도 10명을 추첨, 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주)레임 투어편(1544-2579)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안내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VIP 회원 1년제 10회 관람 100,000원
- 일반회원 1년제 5회 관람 25,000원 10회 관람 45,000원
(청소년 푸른회원 20% 할인, 장애인·경로, 국가유공자 사랑회원 50% 할인)



- 가입비 납입 은행계좌번호 :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 가입 및 공연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ulture.busan.kr)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립극단 제34회 정기공연

원작 대본구성 김정옥

연출 채윤일

부산시립극단 대본구성 이윤택

연희지도 김경화

이돈희



무엇이
두 손이
되고 하니

2009. 4. 2(목)~4(토)

평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우 편 엽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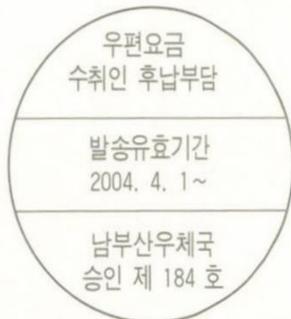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10% 할인



▶ 날짜
2009. 3. 13(금)~4. 5(일)
▶ 시간
평 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입장권 : 균일 25,000원

▶ 장 소 : 조은극장 2관

▶ 문의 및 예매 : 051-245-0042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전망대+세계민속악기 박물관

: 대인 5,500원, 소인 4,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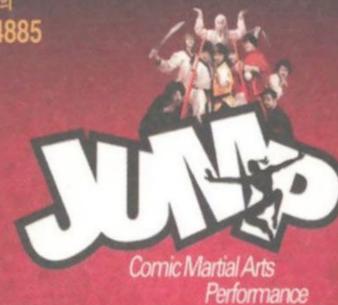
▶ 날짜 : 2009. 1. 1(목)~12. 31(목)

▶ 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 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 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예매 및 문의
051) 744-4885



점프 20% 할인

화~금요일 20시 / 토요일 16시, 20시 / 일 · 공휴일 15시, 18시

1BK (세운대그랜드호텔 B1) 50,000원(R석) / 40,000원(S석)

※ 쿠폰제시 시 1매 4인까지 할인 가능 ※ 전화 및 현장 예매 시 할인 가능 ※ 타 쿠폰, 할인카드 중복사용 불가

대학과 동등한(학점은행제) 교육기관
Guide for Your Dreaming BUSANCONSERVATORY

부산콘서바토리음악원

오페라과 신설

- ▶ 작품 : 푸치니 오페라 '리보덴'
- ▶ 모집일시 : 수시모집
- ▶ 모집대상 : 오페라에 관심있는 분은 나이 학력 제한없이 누구나 가능
- ▶ 수업내용 : 오페라 익보연습 연기
- ▶ 수업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3시

학위과정 학사/전문학사/복수(타전공)학위(매년 2월, 8월중에 모집)
성악(뮤지컬), 피아노, 관현악, 작곡, 지휘, 교회음악(CCM)

유학과정 조기, 단기, 장기유학(유럽 전지역)
본원 자매학교 - 체코 브르노콘서바토리

입시원 예중, 예고, 대학, 편입, 대학원 등 철저한 개인위주의 시스템

취미과정 모든 과정 개인레슨

부산콘서바토리아트홀 대관 - 연주회, 마스터클래스, 세미나 등

부산콘서바토리음악원
BUSAN CONSERVATORY
부산콘서바토리아트홀
BUSANCONSERVATORY Art Hall
부산콘서바토리음악원 대연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2동 595-61
사무실 TEL. 051-501-3999
FAX. 051-505-3999
홈페이지. www.bscon.co.kr
T. 628-9110(경성대전철역 2번 출구, 푸르지오 상가 2층)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특별한 혜택

"당신의 피부속을 진단해 드립니다"

맛사지 무료체험권

DR▲QU

* MBC / SBS / KBS 방송사에서 방영된 놀라운 피부혁명*
여드름 / 기미 / 아토피 / 잔주름 / 검버섯

닥터▲큐 남천점 Tel. 622-6901

지하철 남천역 4번출구 동해빌딩 4층 * 방문시간 사전 예약제 실시*

신춘음악회 飛天

동춘서커스 극악에 안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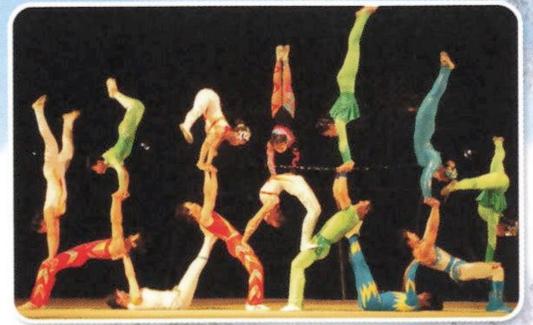
지휘 박 호 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피리 이 종 대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교수



타악 남산놀이마당



아트서커스 동춘서커스

2009년 3월 27일(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관람권 :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주최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후원 FOCUS
문의 / 부산문화회관 www.bsulture.busan.kr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051) 607-607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051) 607-6110 www.bsgugag.com

예매처 BS 부산은행 전지점 인터넷 예매 ticketlink www.ticketlink.co.kr 콜센터 1588-7890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09 신춘음악회

2009 부산연주인시리즈 I



지휘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플루트 정재은

- 모차르트 '마술피리' 서곡
- 라이네케 플루트 협주곡
- 슈트라우스 '봄의 소리' 왈츠
- 슈만 교향곡 제1번 '봄'



주최 부산광역시 후원 **Focus**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 607-6101~4 www.bsculture.busan.kr
 예매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1588-7890
 입장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2009. 3. 13(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